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김숙응

前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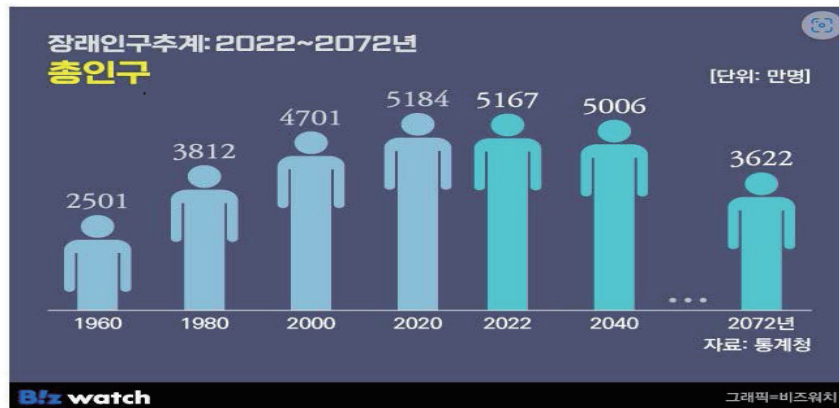
김숙응

(전)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 회장

현재 우리나라 인구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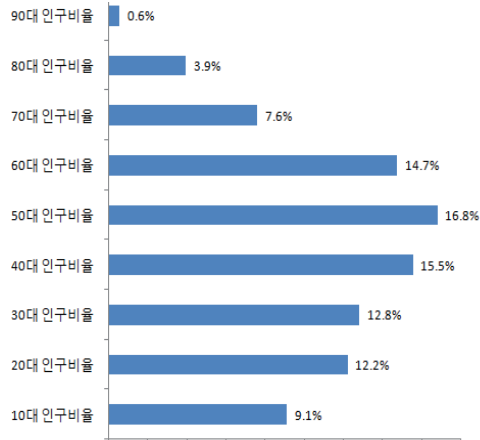
Bizwatch, 정혜인, 2024.04.04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2022년보다 11만3709명 감소



23년 7월 말에 집계한 대한민국 연령대 별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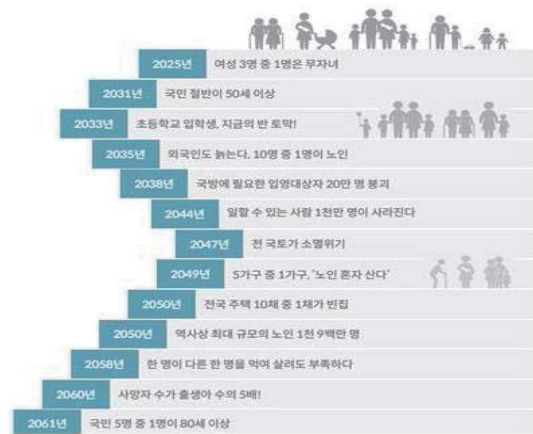
익스페리먼트 No.5



0~9세 인구 3,415,119명
 10~19세 인구 4,674,885명
 20~29세 인구 6,284,235명
 30~39세 인구 6,588,036명
 40~49세 인구 7,988,791명
 50~59세 인구 8,631,299명
 60~69세 인구 7,571,631명
 70~79세 인구 3,907,575명
 80~89세 인구 2,025,747명
 90~99세 인구 290,813명
 대한민국 100세 이상 인구수는 9002 명

한국경제, 이슬기, 2024.05.06,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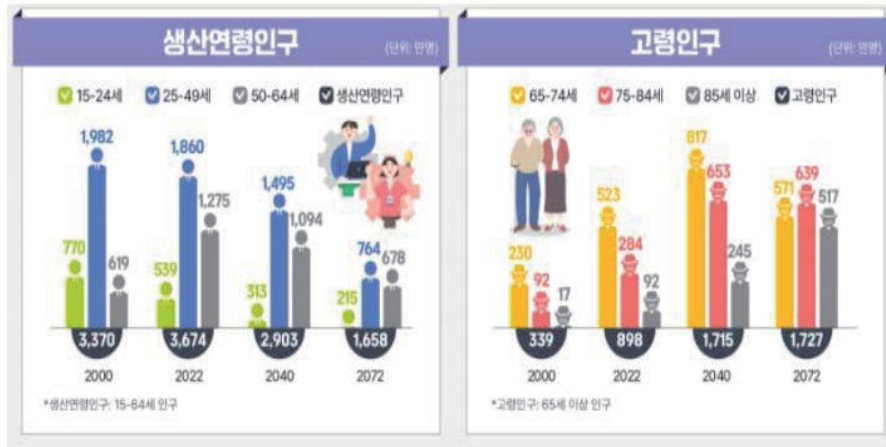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생산연령인구 급감, 2072년 중위연령 6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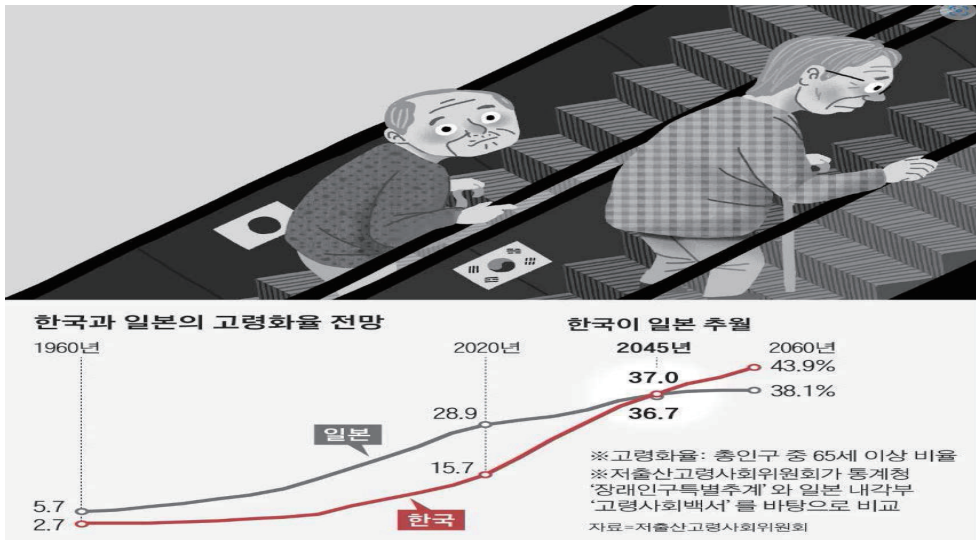
CBS노컷뉴스, 조은정, 2023.12.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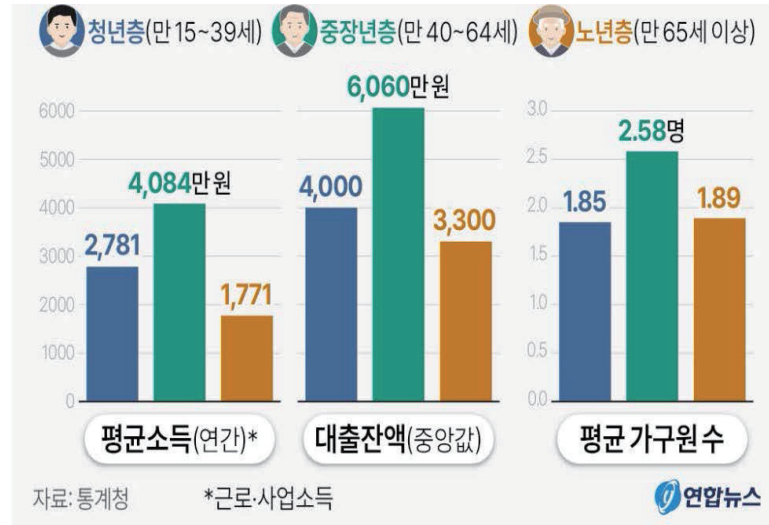
2045년, 한국(37%)은 일본(36.7%)보다 높은 세계 제 1의 노인국가 된다!

조선일보, 김민정, 2021.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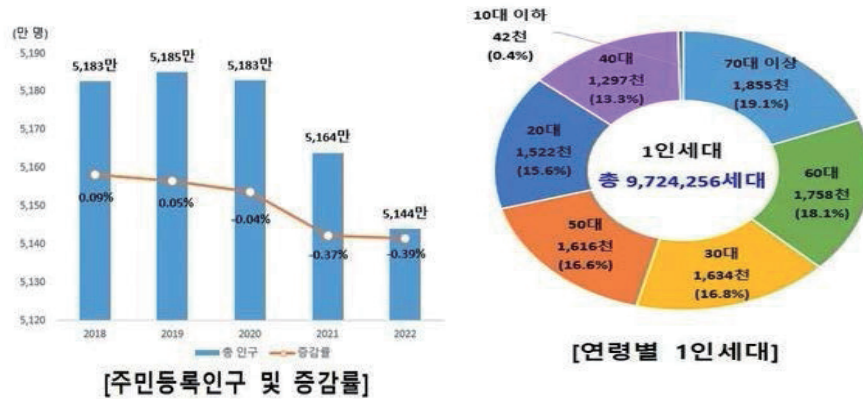
연령계층 별 소득 현황

2022년11월1일기준,연합뉴스,김영은,2023.12.20



인구는 3년 연속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었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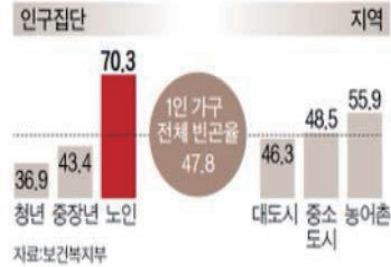
경향신문, 박용필, 2023.08.22



중앙선데이, 배현정, 2024.01.20

1인 가구 빈곤율

단위:%(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기준)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노인 빈곤율 OECD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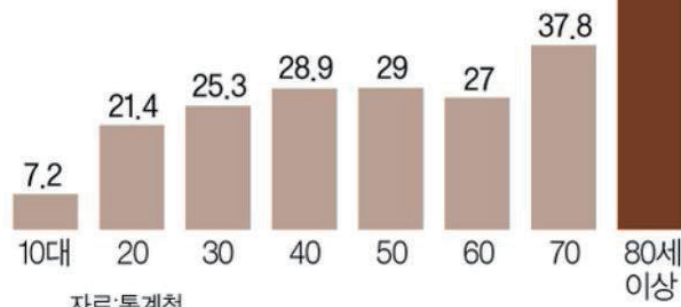
단위:%



중앙선데이, 배현정, 2024.01.20

연령대별 자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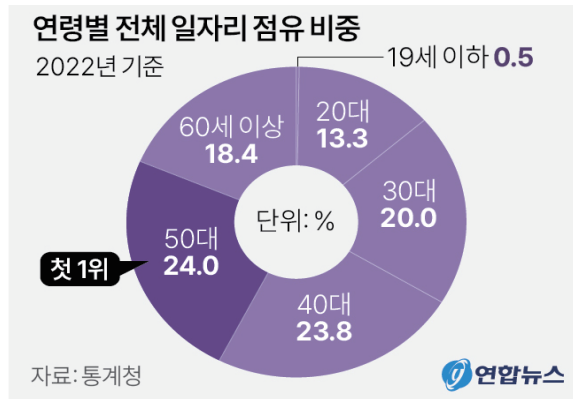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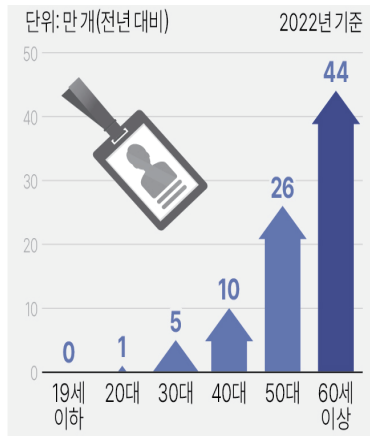
단위:명(인구 10만 명 당)



연령별 일자리 증가

연합뉴스, 김영은, 2023.12.06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44만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음



중앙일보, 조현숙, 서지원, 2023.01.25

손주는 노는데...취업자 다섯 중 하나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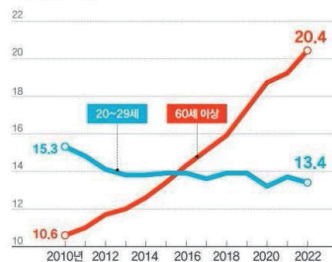
-60세 이상 비중20% 처음 넘어...

-노년층 공공 일자리 크게 늘어, 산업현장도 50세 이상이...

늘어가는 한국 고용시장

연령대별 취업자 비율

단위: % (연말 기준)



2022년 12월 연령대별 취업자

단위: 명, ()안은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율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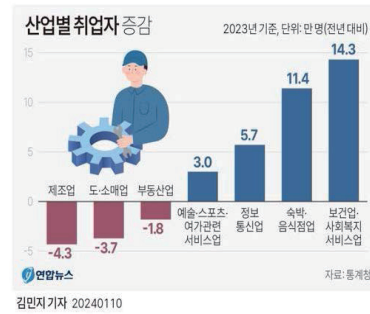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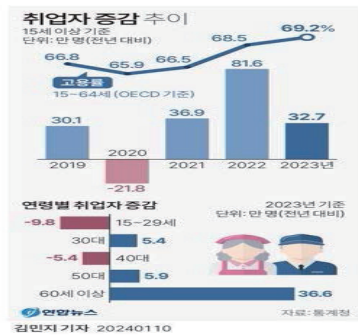
The JoongAng

연합뉴스, 박원희, 박재현, 2024-01-10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었다. 80만명 넘게 급증했던 2022년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여성과 고령층,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에서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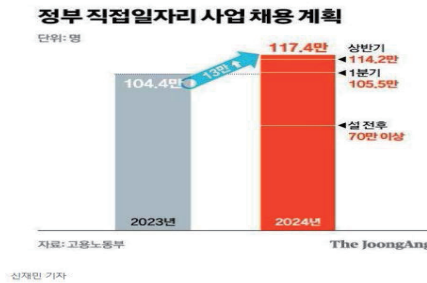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1.2%) 늘었다.



설 전후로 노인·장애인 직접 일자리 70만 개 만든다

중앙일보, 나상현, 2024.01.17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 자리는 오히려 확대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목표 인원은 117만 4000명으로, 지난해(104만 4000명) 대비 13만 명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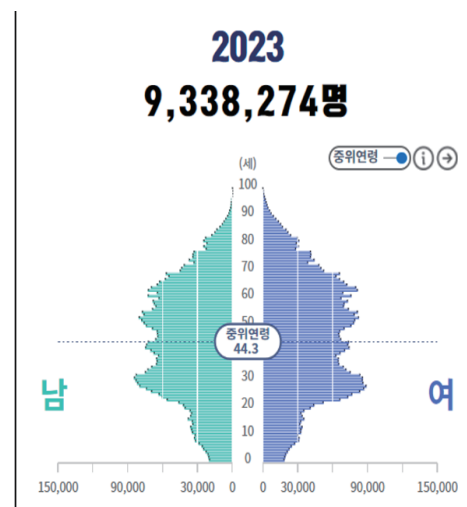
조세제정Brief, 제162호, 최인혁,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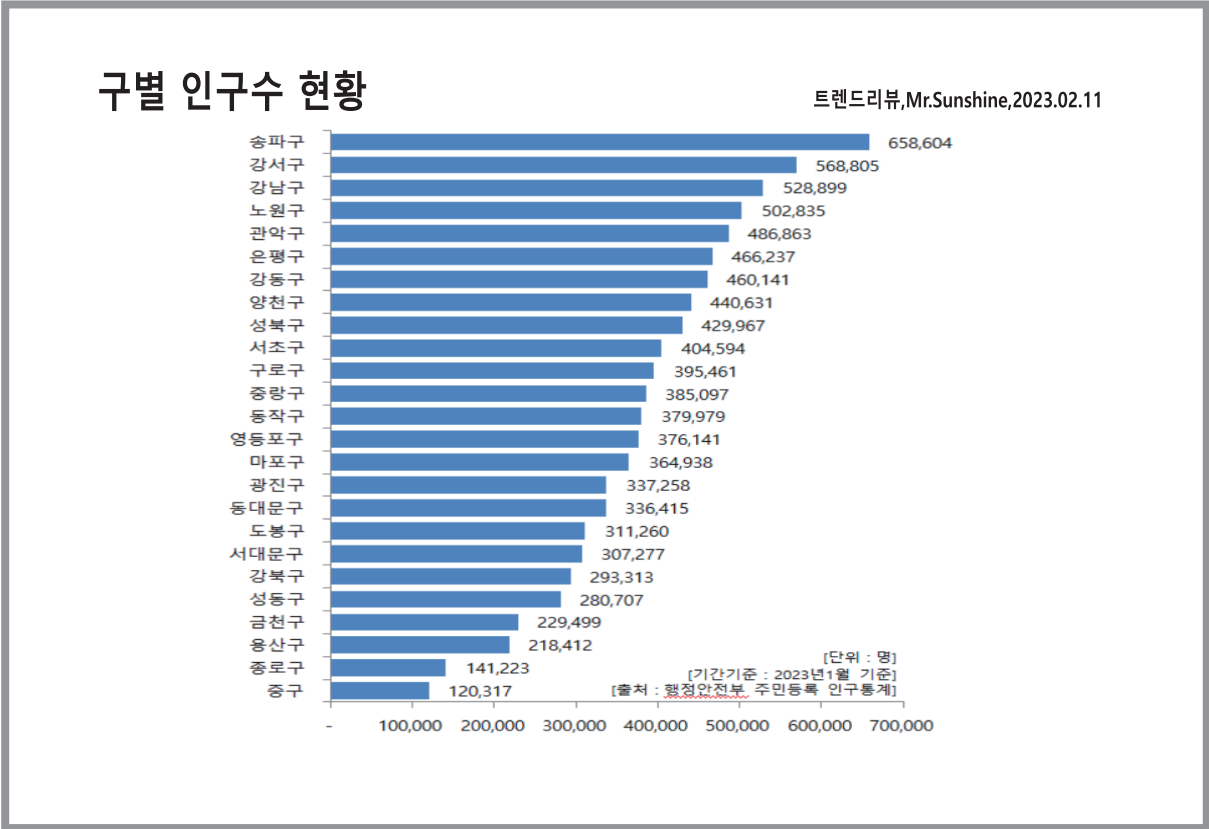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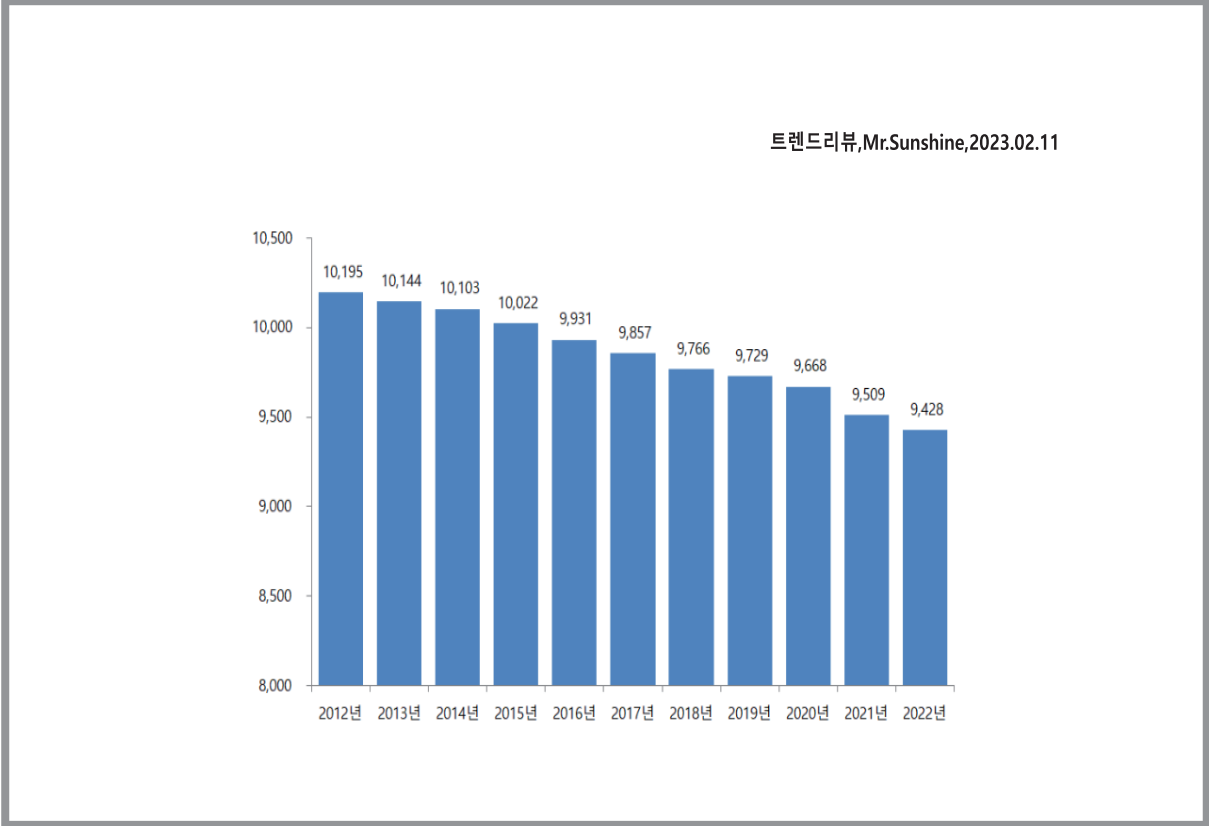
| 유형 | 사업내용 | 사업예시 | 대상 | 활동비, 사업비 | 활동시간 (기간) | 일자리 (천명) |
|---------------------|---|---|----------------------|-----------------|-------------------|----------|
| 공익활동 |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 월 27만원 | 월 30시간, 11개월 | 547 |
| 사회 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행정업무 지원, 안전관리 지원, 미디어 서비스, 장애인 지원 등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월 59.4만원 | 월 60시간, 10개월 | 85 |
|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인적·물적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 해소 일자리 등 | 만 60세 이상 | 월 32만원 | 5개월 | 5 |
| 시장형 사업단 | 노인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식품제조·판매, 공산품 제작·판매, 실버카페, 실버택배 | | 연 267만원 (사업비) | 연중 | 45 |
| 취업 알선형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해당 수요처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 |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 | 연 5만~15만원 (사업비) | 연중 | 88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턴비 지원 | 버스운전원, 조리사, 제조종사자, 영화관보조원, 서비스직 등 | | 월 40만원 (최대 6개월) | 6개월 | 55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 직종에 다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 지원 | 의류제조 판매 및 시니어패션쇼, 자동차 용품 판매, 제과·제빵 등 | | 개소당 최대 3억원 |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 2 |

서울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디지털혁신과 지식발전소, 신한지식탐구자, 2023.08.25

2024년 1/4분기
 전체인구 963만5445명
 65세 이상 인구 176만8948명
 남성 78만4392명
 여성 98만45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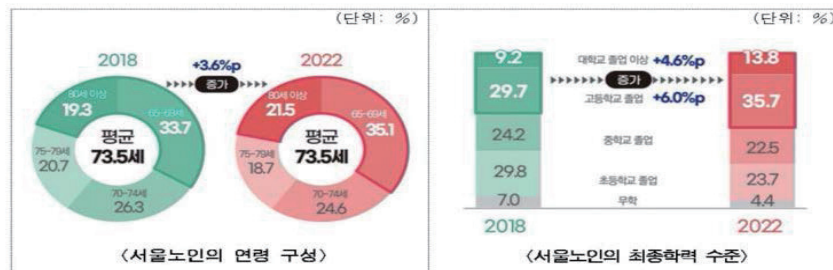


서울시 구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명, %, 세) 동대문이슈. 2024. 06. 03.

| 구분 | 총인구 | | | 구성비 | | | 중위연령 | | |
|------|----------------|------------------|----------------|----------------|------------------|----------------|------|------|------|
| | 유소년 (0-14세) | 생산가능 (15-64세) | 고령 (65세 이상) | 유소년 (0-14세) | 생산가능 (15-64세) | 고령 (65세 이상) | 전체 | 남 | 여 |
| 서울시 | 967,280 | 7,163,331 | 1,605,416 | 9.9 | 73.6 | 16.5 | 43.6 | 42.9 | 44.3 |
| 종로구 | 12,380 | 113,591 | 27,818 | 8.0 | 73.9 | 18.1 | 45.1 | 45.0 | 45.2 |
| 중산구 | 10,086 | 97,309 | 24,392 | 7.7 | 73.8 | 18.5 | 44.7 | 44.5 | 45.0 |
| 용산구 | 21,629 | 176,586 | 39,070 | 9.1 | 74.4 | 16.5 | 43.4 | 42.7 | 44.0 |
| 성동구 | 28,525 | 217,767 | 46,380 | 9.7 | 74.4 | 15.8 | 43.0 | 42.5 | 43.5 |
| 관진구 | 30,445 | 270,459 | 51,723 | 8.6 | 76.7 | 14.7 | 41.8 | 41.4 | 42.1 |
| 동대문구 | 30,896 | 258,899 | 62,211 | 8.8 | 73.5 | 17.7 | 43.2 | 42.9 | 43.6 |
| 중랑구 | 33,752 | 286,451 | 71,682 | 8.6 | 73.1 | 18.3 | 46.3 | 45.3 | 47.3 |
| 성북구 | 44,966 | 320,467 | 74,709 | 10.2 | 72.8 | 17.0 | 43.8 | 43.1 | 44.6 |
| 강북구 | 24,055 | 214,175 | 64,333 | 8.0 | 70.8 | 21.3 | 48.2 | 46.8 | 49.7 |
| 도봉구 | 28,593 | 226,620 | 64,160 | 9.0 | 71.0 | 20.1 | 47.9 | 46.5 | 49.3 |
| 노원구 | 54,263 | 372,338 | 88,345 | 10.5 | 72.3 | 17.2 | 45.3 | 43.7 | 46.5 |
| 은평구 | 45,534 | 344,398 | 87,241 | 9.5 | 72.2 | 18.3 | 45.4 | 44.4 | 46.3 |
| 서대문구 | 29,916 | 231,475 | 54,268 | 9.5 | 73.3 | 17.2 | 43.3 | 42.8 | 43.8 |
| 마포구 | 37,784 | 286,320 | 54,582 | 10.0 | 75.6 | 14.4 | 41.0 | 40.9 | 41.0 |
| 양천구 | 54,329 | 327,531 | 68,627 | 12.1 | 72.7 | 15.2 | 44.4 | 43.5 | 45.1 |
| 강서구 | 58,273 | 428,937 | 92,558 | 10.1 | 74.0 | 16.0 | 42.5 | 41.9 | 43.2 |
| 구로구 | 42,574 | 305,978 | 72,611 | 10.1 | 72.7 | 17.2 | 44.9 | 44.2 | 45.6 |
| 금천구 | 19,503 | 184,347 | 41,041 | 8.0 | 75.3 | 16.8 | 45.4 | 44.4 | 46.6 |
| 영등포구 | 38,445 | 299,947 | 62,516 | 9.6 | 74.8 | 15.6 | 42.6 | 42.3 | 42.8 |
| 동작구 | 36,342 | 291,409 | 66,613 | 9.2 | 73.9 | 16.9 | 42.8 | 41.8 | 43.7 |
| 관악구 | 32,991 | 386,587 | 79,871 | 6.6 | 77.4 | 16.0 | 40.2 | 39.5 | 41.2 |
| 서초구 | 55,160 | 300,329 | 60,678 | 13.3 | 72.2 | 14.6 | 42.4 | 42.1 | 42.7 |
| 강남구 | 64,696 | 394,878 | 78,226 | 12.0 | 73.4 | 14.5 | 42.4 | 42.1 | 42.7 |
| 송파구 | 77,683 | 488,591 | 97,691 | 11.7 | 73.6 | 14.7 | 42.3 | 42.0 | 42.7 |
| 강동구 | 54,460 | 337,942 | 74,070 | 11.7 | 72.4 | 15.9 | 43.4 | 42.7 | 44.1 |

- 2022년 서울시 노인은 평균 73.5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1957년생)가 포함된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음.
- 2018년도에 비해 65~69세 비율과 8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함.

아시아경제, 성기호, 2023.02.06.



디지털혁신과 지식발전소, 신한지식탐구자, 2023.08.25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 5.46% | 7.57% | 15.03% | 15.26% | 14.99% | 15.83% | 14.15% | 7.74% | 3.99% |

'1인 가구' 1천만 시대...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뉴시안, 2023.09.27

서울시 구청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물품 대여에서부터 월세·간병비 지원,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다양...



| 구분 | 1인세대수(세대) | 비율(%) |
|--------|-----------|-------|
| 계 | 9,724,256 | 100.0 |
| 10대 이하 | 41,580 | 0.4 |
| 20대 | 1,521,514 | 15.6 |
| 30대 | 1,634,274 | 16.8 |
| 40대 | 1,297,192 | 13.3 |
| 50대 | 1,616,451 | 16.6 |
| 60대 | 1,758,095 | 18.1 |
| 70대 이상 | 1,855,150 | 19.1 |

[그래픽=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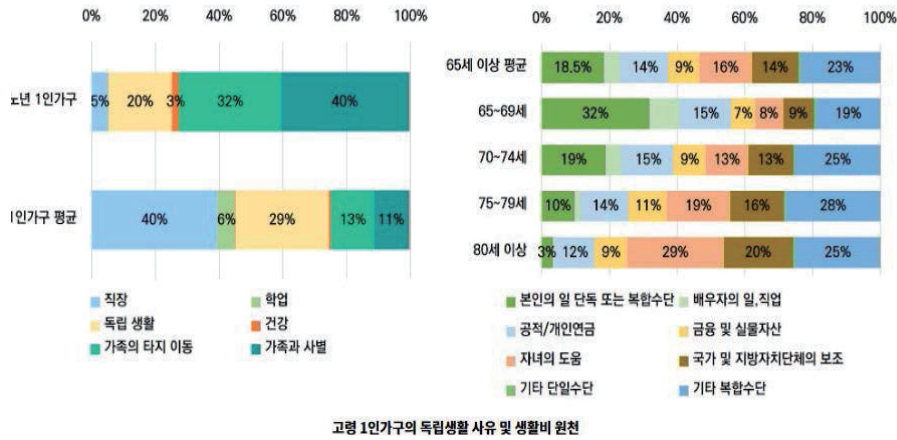
서울시 노인 연령별 1인 가구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023.06.20

| | 총 가구수 |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
| 65세~69세 | 77,047 | 10,113 | 12,663 | 27,406 | 26,865 |
| 70세~74세 | 65,469 | 4,682 | 8,922 | 36,903 | 14,962 |
| 75세~79세 | 54,109 | 2,690 | 5,061 | 38,876 | 7,482 |
| 80세~84세 | 37,968 | 1,079 | 3,063 | 31,272 | 2,554 |
| 85세 이상 | 25,140 | 509 | 1,583 | 22,264 | 784 |

생활비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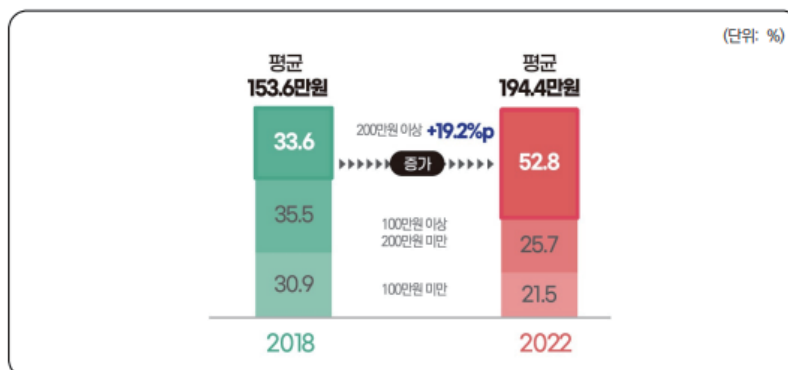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2022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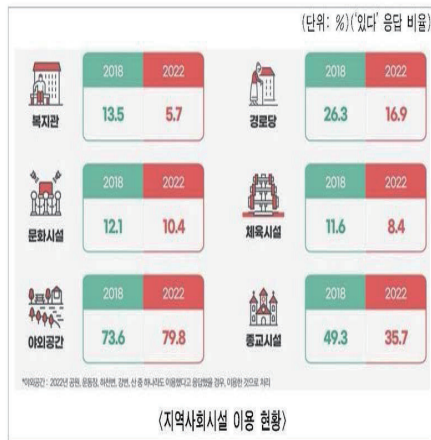
아시아경제, 성기호, 2023.02.06

-2022년 현재 근로활동 중인 서울노인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94.4만원으로, 2018년 153.6만 원 대비 증가함
 -2018년과 2022년 서울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차이는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격차와 유사함.



지역사회시설 이용현황

세계타임즈, 이장성, 2023.02.06



지역사회 시설 이용 만족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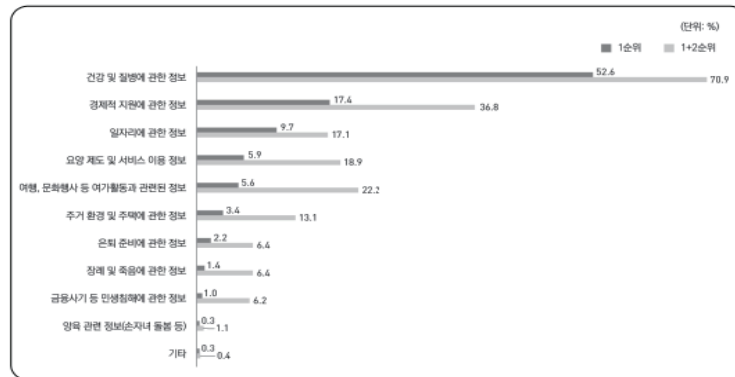
| 시설명 | 사례수 (명) | ① 매우 불만족 | ② 대체로 불만족 | ③ ①+② 불만족 | ④ 그저그렇 | ⑤ 대체로 만족 | ⑥ 매우 만족 | ⑦ ⑤+⑥ 만족 | 계 | 평균 |
|------------------|---------|----------|-----------|-----------|--------|----------|---------|----------|-------|-----|
| 보건소 | (698) | 0.1 | 2.0 | 2.2 | 17.3 | 55.7 | 24.8 | 80.5 | 100.0 | 4.0 |
| 국공립, 시도립 등 공공병원 | (691) | 0.2 | 0.4 | 0.6 | 2.9 | 65.7 | 30.8 | 96.5 | 100.0 | 4.3 |
| 의료기관 그 외 민간 병·의원 | (2,813) | 0.2 | 1.5 | 1.8 | 4.2 | 71.7 | 22.3 | 94.0 | 100.0 | 4.1 |
| 복지관 | (170) | 0.0 | 0.7 | 0.7 | 3.0 | 67.5 | 28.7 | 96.3 | 100.0 | 4.2 |
| 경로당 | (508) | 0.6 | 1.5 | 2.1 | 2.7 | 56.1 | 39.1 | 95.2 | 100.0 | 4.3 |
| 노인대학, 노인교실 | (35) | 3.1 | 0.0 | 3.1 | 0.0 | 56.4 | 40.5 | 96.9 | 100.0 | 4.3 |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121) | 0.0 | 0.8 | 0.8 | 10.6 | 56.0 | 32.7 | 88.6 | 100.0 | 4.2 |
| (공공여가시설 제외) 문화시설 | (314) | 0.0 | 0.6 | 0.6 | 4.1 | 56.1 | 39.1 | 95.3 | 100.0 | 4.3 |
| (공공여가시설 제외) 체육시설 | (252) | 0.8 | 0.4 | 1.2 | 2.2 | 52.9 | 43.7 | 96.6 | 100.0 | 4.4 |
| 공원 | (1,618) | 0.1 | 1.2 | 1.3 | 3.1 | 64.7 | 30.9 | 95.6 | 100.0 | 4.3 |
| 운동장 | (348) | 0.0 | 1.5 | 1.5 | 3.5 | 64.5 | 30.5 | 95.0 | 100.0 | 4.2 |
| 하천변, 강변 | (1,551) | 0.1 | 1.7 | 1.9 | 2.7 | 65.6 | 29.8 | 95.4 | 100.0 | 4.2 |
| 산 | (1,061) | 0.1 | 1.0 | 1.2 | 2.4 | 60.2 | 36.2 | 96.4 | 100.0 | 4.3 |
| 종교시설 | (1,074) | 0.2 | 1.8 | 2.0 | 1.3 | 50.9 | 45.8 | 96.7 | 100.0 | 4.4 |

가장 알고 싶은 정보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1순위(52.6%)와 1+2순위(70.9%) 모두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그 밖에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알고 싶은 정보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1순위 17.4%, 1+2순위 36.8%), 일자리에 관한 정보(1순위 9.7%, 1+2순위 17.1%)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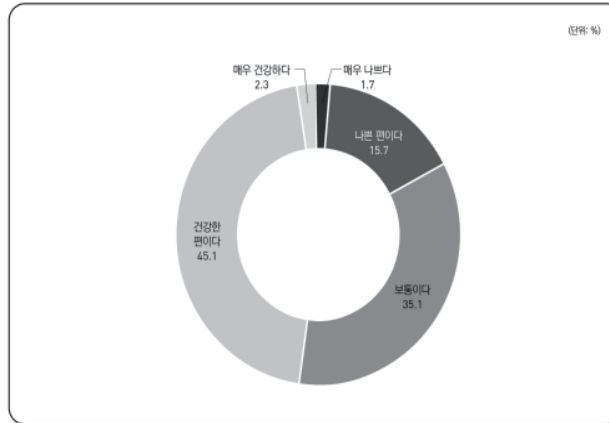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전체 | 사례수 (명) | 텔레비전 | 주위 사람 (가족, 친구) |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 신문 | 공공기관 게시물 | 관공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라디오 | 책, 잡지 | 각종 홍보 우편물 | 계 |
|-----------|---------|------|----------------|-----------------|-----|----------|-----------------|-----|-------|-----------|-------|
| 전체 | (3,010) | 62.0 | 20.4 | 13.2 | 1.7 | 1.1 | 0.8 | 0.5 | 0.2 | 0.1 | 100.0 |
| 성별 | | | | | | | | | | | |
| 남자 | (1,333) | 56.9 | 18.0 | 19.2 | 2.7 | 1.5 | 0.9 | 0.7 | 0.2 | 0.0 | 100.0 |
| 여자 | (1,677) | 66.1 | 22.2 | 8.4 | 1.0 | 0.8 | 0.8 | 0.4 | 0.2 | 0.2 | 100.0 |
| 연령 | | | | | | | | | | | |
| 65-69세 | (1,057) | 53.7 | 17.0 | 24.1 | 2.1 | 1.5 | 0.9 | 0.7 | 0.1 | 0.0 | 100.0 |
| 70-74세 | (742) | 61.0 | 23.0 | 11.6 | 1.5 | 0.9 | 0.8 | 0.9 | 0.2 | 0.1 | 100.0 |
| 75-79세 | (563) | 68.2 | 21.2 | 6.3 | 1.6 | 1.2 | 1.1 | 0.1 | 0.1 | 0.2 | 100.0 |
| 80세 이상 | (648) | 71.5 | 22.1 | 3.2 | 1.3 | 0.6 | 0.7 | 0.3 | 0.2 | 0.2 | 100.0 |
| 최종 학력 | | | | | | | | | | | |
| 무학 | (131) | 70.1 | 28.1 | 0.0 | 0.0 | 1.1 | 0.0 | 0.7 | 0.0 | 0.0 | 100.0 |
| 초등학교 졸업 | (714) | 75.0 | 20.5 | 1.4 | 1.3 | 0.3 | 1.3 | 0.2 | 0.0 | 0.0 | 100.0 |
| 중학교 졸업 | (677) | 67.4 | 21.7 | 6.5 | 1.3 | 1.2 | 0.7 | 1.1 | 0.0 | 0.0 | 100.0 |
| 고등학교 졸업 | (1,073) | 57.5 | 19.7 | 18.5 | 1.7 | 1.1 | 0.7 | 0.5 | 0.2 | 0.1 | 100.0 |
| 대학교 졸업 이상 | (415) | 40.1 | 17.0 | 34.6 | 3.6 | 2.5 | 1.0 | 0.3 | 0.5 | 0.5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
| 독거 | (658) | 68.8 | 21.0 | 7.5 | 0.6 | 0.2 | 1.3 | 0.5 | 0.0 | 0.0 | 100.0 |
| 비독거 | (2,352) | 60.1 | 20.2 | 14.8 | 2.0 | 1.4 | 0.7 | 0.5 | 0.2 | 0.1 | 100.0 |

건강상태(주관적)



정신 건강상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6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증상을 겪은 응답자의 비율은 11.9%로 나타났음.

-우울증상(8~15점)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독거 가구 여부 별로는 독거 가구(22.6%), 권역별로는 서남권(16.0%)등에서 높음.

| Base=전체 | 사제수 (명) | 정신 (0-7점) | 우울증상 (8-15점) | 계 | 평균 (점) |
|----------|---|--------------------------------------|------------------------------------|---|---------------------------------|
| 전체 | (3,010) | 88.1 | 11.9 | 100.0 | 3.3 |
| 성별 | 남자 (1,333) 여자 (1,677) | 88.6 87.6 | 11.4 12.4 | 100.0 100.0 | 3.1 3.4 |
| 연령 | 65-69세 (1,057) 70-74세 (742) 75-79세 (563) 80세 이상 (648) | 91.8 89.4 85.9 82.3 | 8.2 10.6 14.1 17.7 | 100.0 100.0 100.0 100.0 | 2.5 3.1 3.6 4.3 |
| 최종 학력 | 무학 (131) 초등학교 졸업 (714) 중학교 졸업 (677) 고등학교 졸업 (1,075) 대학교 졸업 이상 (415) | 65.5 79.2 86.3 94.2 97.5 | 34.5 20.8 13.7 5.8 2.5 | 100.0 100.0 100.0 100.0 100.0 | 6.0 4.4 3.6 2.5 1.9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668) 비독거 (2,352) | 77.4 91.0 | 22.6 9.0 | 100.0 100.0 | 4.5 2.9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15) 100-199만원 (684) 200-299만원 (696) 300-399만원 (527) 400만원 이상 (699) | 68.9 84.6 90.9 94.1 95.4 | 31.1 15.4 9.1 5.9 4.6 | 100.0 100.0 100.0 100.0 100.0 | 5.6 3.8 2.9 2.6 2.2 |

기능 상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6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씹기 관련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력(49.4%), 걷기(8.0%), 청력(7.2%)의 순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신체기능 중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은 걷기(3.5%), 씹기(2.8%), 시력(2.7%)과 청력(2.7%)의 순임.

| 구분 | 사례수 (명) | 보조기 사용 여부 | | | 일상생활 시 불편함 정도 | | | |
|----|------------|-----------|------|-------|---------------|------|--------|-------|
| | | 사용함 | 사용안함 | 계 | 불편 없음 | 불편함 | 매우 불편함 | 계 |
| 시력 | (3,010) | 49.4 | 50.6 | 100.0 | 62.0 | 35.3 | 2.7 | 100.0 |
| 청력 | (3,010) | 7.2 | 92.8 | 100.0 | 78.2 | 19.1 | 2.7 | 100.0 |
| 씹기 | (3,010) | 50.6 | 49.4 | 100.0 | 67.0 | 30.3 | 2.8 | 100.0 |
| 걷기 | (3,010) | 8.0 | 92.0 | 100.0 | 80.9 | 15.6 | 3.5 | 100.0 |

일상생활수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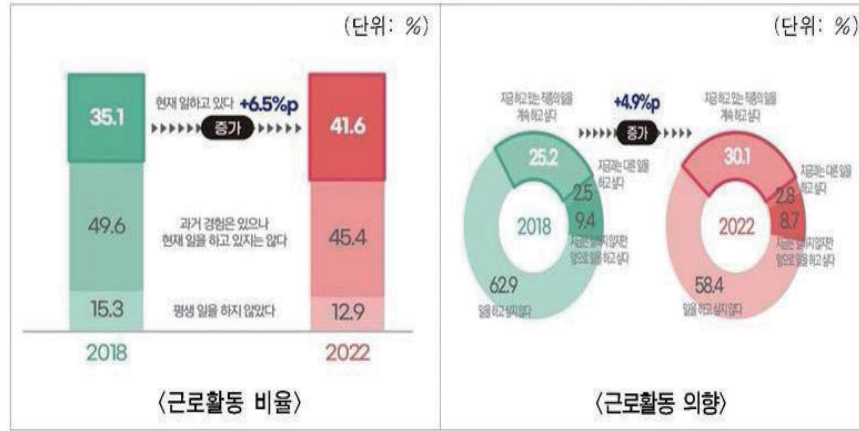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10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동작별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6.6%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10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것(완전자립)으로 나타났음.

| Base=전체 | 사례수 (명) | 완전자립 | 1-2개 | 3-4개 | 5-6개 | 7-8개 | 9-10개 | 계 | 평균(%) |
|----------|-----------------|------|------|------|------|------|-------|-------|-------|
| 전체 | (3,010) | 86.6 | 5.3 | 5.2 | 1.4 | 0.9 | 0.6 | 100.0 | 0.5 |
| 성별 | 남자 (1,333) | 83.0 | 6.7 | 8.0 | 1.0 | 0.6 | 0.6 | 100.0 | 0.5 |
| | 여자 (1,677) | 89.4 | 4.1 | 3.0 | 1.7 | 1.2 | 0.6 | 100.0 | 0.4 |
| 연령 | 65-69세 (1,057) | 93.0 | 3.1 | 3.2 | 0.2 | 0.2 | 0.4 | 100.0 | 0.2 |
| | 70-74세 (742) | 90.9 | 3.2 | 4.4 | 0.8 | 0.4 | 0.3 | 100.0 | 0.3 |
| | 75-79세 (563) | 85.0 | 7.6 | 5.5 | 0.7 | 1.0 | 0.1 | 100.0 | 0.4 |
| | 80세 이상 (648) | 72.5 | 9.2 | 9.2 | 4.6 | 2.7 | 1.8 | 100.0 | 1.1 |
| 최종 학력 | 무학 (131) | 67.4 | 7.7 | 12.1 | 5.6 | 4.7 | 2.5 | 100.0 | 1.4 |
| | 초등학교 졸업 (714) | 84.8 | 5.3 | 4.8 | 2.3 | 2.0 | 0.8 | 100.0 | 0.6 |
| | 중학교 졸업 (677) | 88.8 | 4.7 | 4.4 | 1.1 | 0.7 | 0.4 | 100.0 | 0.4 |
| | 고등학교 졸업 (1,073) | 88.9 | 4.6 | 4.7 | 0.9 | 0.3 | 0.5 | 100.0 | 0.3 |
| | 대학교 졸업 이상 (415) | 85.8 | 7.2 | 6.2 | 0.4 | 0.0 | 0.4 | 100.0 | 0.4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658) | 88.4 | 4.2 | 3.5 | 2.2 | 1.5 | 0.3 | 100.0 | 0.4 |
| | 비독거 (2,352) | 86.0 | 5.6 | 5.7 | 1.2 | 0.8 | 0.7 | 100.0 | 0.5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15) | 82.0 | 6.3 | 6.2 | 2.5 | 2.3 | 0.7 | 100.0 | 0.7 |
| | 100-199만원 (684) | 88.1 | 3.5 | 4.7 | 1.5 | 1.1 | 1.1 | 100.0 | 0.5 |
| | 200-299만원 (686) | 86.7 | 5.2 | 5.6 | 1.3 | 0.3 | 0.8 | 100.0 | 0.4 |
| | 300-399만원 (527) | 85.6 | 5.8 | 6.1 | 1.5 | 0.8 | 0.2 | 100.0 | 0.4 |
| | 400만원 이상 (699) | 88.3 | 6.2 | 4.0 | 0.7 | 0.7 | 0.2 | 100.0 | 0.3 |

근로활동비율

세계타임즈, 이장성, 2023.02.06



특성 별 일을 하는 이유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현재 일하는 경우 | 사례수 (명) | 생계비 마련 | 운동 마련 | 건강 유지 | 능력(경력) 발휘 | 시간 보내기 | 사람들과 사귀기 | 계 |
|-----------------|------------------------|--------|-------|-------|-----------|--------|----------|-------|
| 성별 | 남자 (677) | 72.3 | 15.9 | 6.5 | 3.9 | 0.9 | 0.5 | 100.0 |
| | 여자 (577) | 76.1 | 12.0 | 5.6 | 4.7 | 1.1 | 0.6 | 100.0 |
| | | 67.8 | 20.4 | 7.6 | 3.0 | 0.7 | 0.4 | 100.0 |
| 연령 | 65-69세 (641) | 74.5 | 12.2 | 7.4 | 5.3 | 0.2 | 0.4 | 100.0 |
| | 70-74세 (331) | 71.8 | 16.5 | 5.5 | 3.2 | 2.1 | 0.9 | 100.0 |
| | 75-79세 (172) | 67.5 | 24.5 | 5.6 | 1.0 | 1.5 | 0.0 | 100.0 |
| | 80세 이상 (110) | 68.2 | 22.0 | 5.8 | 2.8 | 0.7 | 0.5 | 100.0 |
| 최종 학력 | 무학 (35) | 86.9 | 8.5 | 2.5 | 0.0 | 2.1 | 0.0 | 100.0 |
| | 초등학교 졸업 (216) | 73.5 | 20.3 | 4.6 | 0.5 | 0.5 | 0.5 | 100.0 |
| | 중학교 졸업 (272) | 79.7 | 15.5 | 2.5 | 1.0 | 0.7 | 0.6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520) | 69.5 | 15.6 | 9.6 | 4.0 | 1.1 | 0.3 | 100.0 |
| | 대학교 졸업 이상 (210) | 66.0 | 13.7 | 6.6 | 11.6 | 1.0 | 1.1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179) | 79.3 | 13.6 | 4.7 | 2.4 | 0.0 | 0.0 | 100.0 |
| | 비독거 (1,074) | 71.1 | 16.3 | 6.8 | 4.2 | 1.1 | 0.6 | 100.0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85) | 74.2 | 17.0 | 8.9 | 0.0 | 0.0 | 0.0 | 100.0 |
| | 100-199만원 (185) | 78.5 | 15.4 | 3.7 | 0.4 | 1.5 | 0.5 | 100.0 |
| | 200-299만원 (323) | 75.1 | 15.1 | 6.7 | 1.9 | 0.7 | 0.6 | 100.0 |
| | 300-399만원 (274) | 73.0 | 17.4 | 6.1 | 3.2 | 0.0 | 0.4 | 100.0 |
| | 400만원 이상 (387) | 66.2 | 15.4 | 7.5 | 8.6 | 1.7 | 0.6 | 100.0 |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현재 일하는 경우 | 사례수 (명) | 2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60시간 이상 | 계 | 평균 (시간) |
|-----------------|------------|---------|----------------------|----------------------|---------|-------|------------|
| ☐ 전체 ☐ | (1,254) | 21.2 | 17.2 | 47.7 | 13.9 | 100.0 | 37.0 |
| 성별 | | | | | | | |
| 남자 | (677) | 11.8 | 14.5 | 57.3 | 16.5 | 100.0 | 41.5 |
| 여자 | (577) | 32.4 | 20.5 | 36.3 | 10.9 | 100.0 | 31.8 |
| 연령 | | | | | | | |
| 65-69세 | (641) | 10.2 | 14.6 | 61.6 | 13.6 | 100.0 | 41.1 |
| 70-74세 | (331) | 22.0 | 21.4 | 40.5 | 16.1 | 100.0 | 36.6 |
| 75-79세 | (172) | 34.1 | 22.3 | 29.5 | 14.1 | 100.0 | 32.6 |
| 80세 이상 | (110) | 63.1 | 11.8 | 16.4 | 8.7 | 100.0 | 21.4 |
| 최종 학력 | | | | | | | |
| 무학 | (35) | 75.7 | 4.4 | 9.7 | 10.2 | 100.0 | 17.8 |
| 초등학교 졸업 | (216) | 42.5 | 19.0 | 25.6 | 13.0 | 100.0 | 29.9 |
| 중학교 졸업 | (272) | 23.2 | 15.4 | 41.5 | 19.9 | 100.0 | 38.1 |
| 고등학교 졸업 | (520) | 10.7 | 17.8 | 55.4 | 16.0 | 100.0 | 41.0 |
| 대학교 졸업 이상 | (210) | 13.8 | 18.5 | 65.4 | 2.3 | 100.0 | 36.5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독거 | (179) | 42.2 | 16.6 | 30.8 | 10.4 | 100.0 | 29.7 |
| 비독거 | (1,074) | 17.7 | 17.3 | 50.5 | 14.5 | 100.0 | 38.2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85) | 77.5 | 6.4 | 8.7 | 7.4 | 100.0 | 17.0 |
| 100-199만원 | (185) | 40.1 | 29.1 | 18.7 | 12.1 | 100.0 | 28.5 |
| 200-299만원 | (323) | 14.3 | 19.0 | 52.9 | 13.8 | 100.0 | 39.8 |
| 300-399만원 | (274) | 11.5 | 13.5 | 60.1 | 14.8 | 100.0 | 40.8 |
| 400만원 이상 | (387) | 12.6 | 15.0 | 56.8 | 15.6 | 100.0 | 40.5 |

특성 별 종사상 지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현재 일하는 경우 | 사례수 (명)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계 |
|-----------------|------------|------|------|------|----------------|-----------------|-------------|-------|
| ☐ 전체 ☐ | (1,254) | 28.2 | 25.3 | 10.0 | 3.9 | 31.0 | 1.6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자 | (677) | 33.1 | 18.4 | 8.1 | 5.3 | 34.6 | 0.5 | 100.0 |
| 여자 | (577) | 22.4 | 33.4 | 12.3 | 2.2 | 26.9 | 2.8 | 100.0 |
| 연령 | | | | | | | | |
| 65-69세 | (641) | 40.3 | 16.8 | 5.4 | 4.6 | 31.5 | 1.5 | 100.0 |
| 70-74세 | (331) | 24.3 | 28.0 | 11.6 | 3.6 | 30.9 | 1.6 | 100.0 |
| 75-79세 | (172) | 6.4 | 35.9 | 18.2 | 4.0 | 33.6 | 2.0 | 100.0 |
| 80세 이상 | (110) | 3.8 | 50.0 | 19.4 | 0.5 | 24.9 | 1.4 | 100.0 |
| 최종 학력 | | | | | | | | |
| 무학 | (35) | 2.5 | 58.3 | 16.3 | 0.0 | 22.9 | 0.0 | 100.0 |
| 초등학교 졸업 | (216) | 11.3 | 35.5 | 19.4 | 1.3 | 28.6 | 3.8 | 100.0 |
| 중학교 졸업 | (272) | 21.1 | 23.4 | 14.2 | 1.2 | 38.0 | 2.1 | 100.0 |
| 고등학교 졸업 | (520) | 35.4 | 20.4 | 6.6 | 4.5 | 32.4 | 0.7 | 100.0 |
| 대학교 졸업 이상 | (210) | 41.3 | 23.6 | 2.3 | 9.3 | 22.5 | 1.0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독거 | (179) | 9.1 | 38.2 | 18.5 | 2.9 | 30.8 | 0.5 | 100.0 |
| 비독거 | (1,074) | 31.4 | 23.1 | 8.6 | 4.1 | 31.1 | 1.8 | 100.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5) | 1.1 | 53.8 | 25.8 | 0.0 | 19.4 | 0.0 | 100.0 |
| 100-199만원 | (185) | 7.2 | 41.8 | 20.6 | 1.0 | 27.4 | 2.0 | 100.0 |
| 200-299만원 | (323) | 29.8 | 25.4 | 10.9 | 1.8 | 30.7 | 1.3 | 100.0 |
| 300-399만원 | (274) | 33.7 | 18.3 | 4.6 | 5.5 | 35.1 | 2.7 | 100.0 |
| 400만원 이상 | (387) | 38.9 | 16.0 | 4.6 | 6.7 | 32.6 | 1.2 | 100.0 |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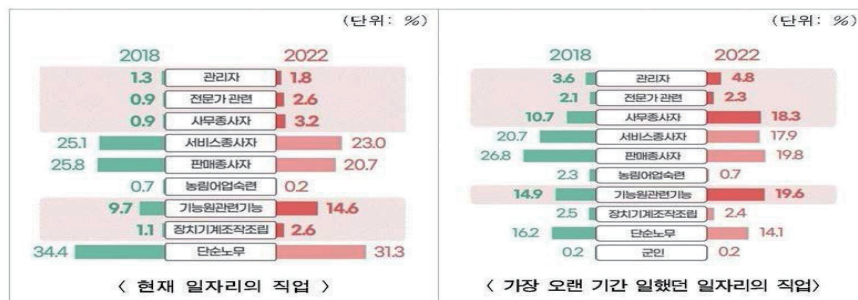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 | 사례수 (명)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계 | 평균 (만원) |
|-----------------------|-----------|---------|----------|--------------------|----------|-------|---------|
| ■ 전체 ■ | | (1,234) | 21.5 | 25.7 | 52.8 | 100.0 | 194.4 |
| 성별 | 남자 | (673) | 10.4 | 21.5 | 68.1 | 100.0 | 237.4 |
| | 여자 | (560) | 34.7 | 30.8 | 34.4 | 100.0 | 142.8 |
| 연령 | 65-69세 | (632) | 8.5 | 22.6 | 68.9 | 100.0 | 238.8 |
| | 70-74세 | (325) | 20.8 | 31.6 | 47.5 | 100.0 | 179.3 |
| | 75-79세 | (168) | 40.7 | 32.4 | 26.8 | 100.0 | 129.0 |
| | 80세 이상 | (108) | 69.1 | 16.0 | 14.9 | 100.0 | 83.0 |
| 최종 학력 | 무학 | (35) | 80.2 | 15.3 | 4.5 | 100.0 | 49.5 |
| | 초등학교 졸업 | (207) | 50.0 | 32.2 | 17.7 | 100.0 | 106.5 |
| | 중학교 졸업 | (266) | 24.7 | 28.1 | 47.2 | 100.0 | 162.7 |
| | 고등학교 졸업 | (517) | 9.6 | 26.6 | 63.8 | 100.0 | 216.1 |
| | 대학교 졸업 이상 | (208) | 8.4 | 16.0 | 75.6 | 100.0 | 293.3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 (179) | 50.9 | 22.0 | 27.1 | 100.0 | 115.1 |
| | 비독거 | (1,055) | 16.5 | 26.4 | 57.1 | 100.0 | 207.8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85) | 92.4 | 3.7 | 3.9 | 100.0 | 42.5 |
| | 100-199만원 | (181) | 52.7 | 41.4 | 5.8 | 100.0 | 90.3 |
| | 200-299만원 | (319) | 10.5 | 39.3 | 50.2 | 100.0 | 179.1 |
| | 300-399만원 | (267) | 9.4 | 20.4 | 70.2 | 100.0 | 220.0 |
| | 400만원 이상 | (383) | 8.6 | 15.6 | 75.9 | 100.0 | 272.2 |

근무직종

세계타임즈, 이장성, 2023.02.06

-2018년 대비 현재 일하고 있는 서울 노인의 직업 중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비율은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단순노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음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

| Base=과거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가장 오래한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 사례수 (명) | 만50세 미만 | 만50 ~ 59세 | 만60 ~ 64세 | 만65 ~ 69세 | 만70세 이상 | 계 | 평균 (세) |
|---|-----------|---------|---------|-----------|-----------|-----------|---------|-------|--------|
| ▣ 전체 ▣ | | (1,851) | 6.0 | 23.3 | 38.2 | 21.8 | 10.7 | 100.0 | 60.7 |
| 성별 | 남자 | (931) | 1.9 | 20.6 | 43.3 | 24.3 | 9.9 | 100.0 | 62.2 |
| | 여자 | (920) | 10.1 | 26.1 | 33.0 | 19.2 | 11.5 | 100.0 | 59.3 |
| 연령 | 65-69세 | (516) | 9.1 | 32.2 | 43.6 | 15.1 | 0.0 | 100.0 | 58.0 |
| | 70-74세 | (462) | 4.6 | 20.3 | 39.1 | 30.0 | 6.0 | 100.0 | 61.0 |
| | 75-79세 | (388) | 3.9 | 19.0 | 37.0 | 22.8 | 17.4 | 100.0 | 62.3 |
| | 80세 이상 | (484) | 5.7 | 20.2 | 32.6 | 20.3 | 21.3 | 100.0 | 62.2 |
| 최종 학력 | 무학 | (91) | 2.2 | 19.7 | 24.6 | 18.5 | 35.0 | 100.0 | 64.6 |
| | 초등학교 졸업 | (457) | 3.9 | 22.1 | 35.6 | 22.4 | 16.0 | 100.0 | 61.9 |
| | 중학교 졸업 | (416) | 4.1 | 23.2 | 36.7 | 25.7 | 10.4 | 100.0 | 61.2 |
| | 고등학교 졸업 | (599) | 8.1 | 25.0 | 39.1 | 21.2 | 6.7 | 100.0 | 59.5 |
| | 대학교 졸업 이상 | (288) | 8.7 | 23.3 | 47.0 | 17.5 | 3.5 | 100.0 | 59.5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 (454) | 4.9 | 26.0 | 33.6 | 22.8 | 12.7 | 100.0 | 61.2 |
| | 비독거 | (1,397) | 6.3 | 22.5 | 39.7 | 21.5 | 10.0 | 100.0 | 60.6 |

60세 이후 취업 경험 또는 시도 여부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현재 일하거나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사례수 (명) | 취업한 경험이 있다 | 취업을 시도해 보았으나 재취업하지는 못하였다 | 취업한 경험이 없다 | 계 |
|------------------------------|-----------|---------|------------|--------------------------|------------|-------|
| ▣ 전체 ▣ | | (2,621) | 34.5 | 3.0 | 62.4 | 100.0 |
| 성별 | 남자 | (1,325) | 33.8 | 3.1 | 63.1 | 100.0 |
| | 여자 | (1,297) | 35.3 | 3.0 | 61.7 | 100.0 |
| 연령 | 65-69세 | (965) | 31.7 | 2.9 | 65.4 | 100.0 |
| | 70-74세 | (657) | 39.4 | 2.6 | 58.0 | 100.0 |
| | 75-79세 | (476) | 36.5 | 3.0 | 60.5 | 100.0 |
| | 80세 이상 | (523) | 32.1 | 3.7 | 64.2 | 100.0 |
| 최종 학력 | 무학 | (104) | 39.3 | 3.2 | 57.5 | 100.0 |
| | 초등학교 졸업 | (580) | 36.1 | 3.8 | 60.1 | 100.0 |
| | 중학교 졸업 | (604) | 28.8 | 3.9 | 67.3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 (945) | 34.3 | 2.6 | 63.1 | 100.0 |
| | 대학교 졸업 이상 | (388) | 40.5 | 1.5 | 58.0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 (546) | 31.9 | 6.2 | 61.9 | 100.0 |
| | 비독거 | (2,075) | 35.2 | 2.2 | 62.6 | 100.0 |

60세 이후 취업을 하게 된 경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60세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가족, 친척, 이웃 등 지인의 소개 | 공공기관 소개 | 민간 기관 소개 | 신문, 광고지,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 | 채용 박람회 참여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 전체 ■ | (906) | 44.1 | 26.8 | 9.2 | 6.8 | 0.1 | 0.6 | 12.4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자 | (448) | 45.8 | 20.3 | 11.2 | 10.4 | 0.0 | 0.7 | 11.6 | 100.0 |
| 여자 | (458) | 42.5 | 33.2 | 7.1 | 3.2 | 0.2 | 0.4 | 13.3 | 100.0 |
| 연령 | | | | | | | | | |
| 65-69세 | (306) | 47.2 | 19.5 | 9.3 | 10.7 | 0.0 | 0.4 | 13.0 | 100.0 |
| 70-74세 | (258) | 45.6 | 24.3 | 11.4 | 5.6 | 0.4 | 0.8 | 11.9 | 100.0 |
| 75-79세 | (174) | 43.1 | 32.7 | 8.3 | 3.1 | 0.0 | 0.0 | 12.9 | 100.0 |
| 80세 이상 | (168) | 37.4 | 38.1 | 6.3 | 5.2 | 0.0 | 1.1 | 11.8 | 100.0 |
| 최종 학력 | | | | | | | | | |
| 무학 | (41) | 27.4 | 52.2 | 4.2 | 0.0 | 0.0 | 2.5 | 13.8 | 100.0 |
| 초등학교 졸업 | (209) | 37.9 | 35.0 | 5.9 | 4.3 | 0.0 | 0.5 | 16.4 | 100.0 |
| 중학교 졸업 | (174) | 42.7 | 27.3 | 12.8 | 4.2 | 0.5 | 0.6 | 11.9 | 100.0 |
| 고등학교 졸업 | (324) | 49.6 | 21.2 | 11.6 | 7.5 | 0.0 | 0.0 | 10.1 | 100.0 |
| 대학교 졸업 이상 | (157) | 47.1 | 20.4 | 5.7 | 13.1 | 0.0 | 1.4 | 12.3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독거 | (174) | 35.5 | 36.4 | 7.6 | 5.4 | 0.0 | 1.2 | 13.9 | 100.0 |
| 비독거 | (731) | 46.2 | 24.5 | 9.5 | 7.1 | 0.1 | 0.4 | 12.1 | 100.0 |

60세 이후 취업한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60세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낮은 급여 |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 | 근로 조건 | 높은 노동 강도 | 출퇴근의 어려움 | 고용주 및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 모름/무응답 |
|---------------------------|--------------|-------------|---------------|-------------|------------|------------|--------------------|------------|-------------|-------------|
| ■ 전체 ■ | (906) | 44.6 | 32.2 | 20.9 | 7.6 | 5.3 | 1.4 | 0.3 | 11.5 | 12.4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448) | 43.0 | 34.8 | 23.4 | 8.6 | 5.2 | 1.4 | 0.2 | 11.6 | 11.6 |
| 여자 | (458) | 46.2 | 29.7 | 18.4 | 6.6 | 5.3 | 1.4 | 0.3 | 11.3 | 13.3 |
| 연령 | | | | | | | | | | |
| 65-69세 | (306) | 38.7 | 29.4 | 18.7 | 7.8 | 8.0 | 1.2 | 0.5 | 14.6 | 13.0 |
| 70-74세 | (258) | 52.2 | 34.0 | 20.5 | 7.6 | 4.5 | 0.8 | 0.0 | 8.9 | 11.9 |
| 75-79세 | (174) | 46.0 | 31.9 | 22.1 | 6.5 | 2.6 | 1.6 | 0.0 | 11.4 | 12.9 |
| 80세 이상 | (168) | 42.1 | 34.7 | 24.0 | 8.3 | 4.2 | 2.7 | 0.5 | 9.7 | 11.8 |
| 최종 학력 | | | | | | | | | | |
| 무학 | (41) | 50.0 | 29.8 | 16.3 | 6.8 | 2.1 | 0.0 | 0.0 | 12.7 | 13.8 |
| 초등학교 졸업 | (209) | 45.7 | 30.7 | 15.6 | 9.5 | 2.9 | 1.4 | 0.0 | 13.2 | 16.4 |
| 중학교 졸업 | (174) | 47.1 | 32.2 | 20.5 | 8.4 | 3.3 | 1.2 | 0.0 | 9.7 | 11.9 |
| 고등학교 졸업 | (324) | 43.3 | 34.4 | 22.8 | 6.1 | 5.7 | 2.1 | 0.5 | 10.3 | 10.1 |
| 대학교 졸업 이상 | (157) | 41.8 | 30.2 | 25.4 | 7.4 | 10.5 | 0.7 | 0.5 | 13.2 | 12.3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 독거 | (174) | 46.3 | 36.7 | 22.7 | 11.2 | 4.1 | 0.6 | 0.0 | 8.9 | 13.9 |
| 비독거 | (731) | 44.2 | 31.1 | 20.4 | 6.7 | 5.5 | 1.6 | 0.3 | 12.1 | 12.1 |

60세 이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60세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제한적인 취업 직종 | 나이가 인한 취업 기회 자체 차단 | 적절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 취업알선 기관의 적절한 서비스 부족 | 재취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지원 부족 | 취업처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 부족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 모름/ 무응답 |
|---------------------------------|------------|---------------|-----------------------------|-------------------------|---------------------------------|-------------------------------------|----------------------------------|-----|-------------|------------|
| ■ 전체 ■ | (906) | 44.3 | 30.9 | 20.3 | 8.3 | 6.0 | 4.7 | 0.3 | 11.9 | 12.4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448) | 41.9 | 32.3 | 22.9 | 9.2 | 6.0 | 3.9 | 0.4 | 12.6 | 11.6 |
| 여자 | (458) | 46.8 | 29.5 | 17.8 | 7.3 | 6.0 | 5.4 | 0.2 | 11.2 | 13.3 |
| 연령 | | | | | | | | | | |
| 65-69세 | (306) | 42.3 | 30.1 | 19.4 | 7.3 | 8.6 | 5.7 | 0.0 | 14.3 | 13.0 |
| 70-74세 | (258) | 46.6 | 32.8 | 17.8 | 8.1 | 5.4 | 4.8 | 0.0 | 10.6 | 11.9 |
| 75-79세 | (174) | 43.1 | 29.7 | 21.0 | 9.4 | 5.5 | 5.0 | 0.5 | 10.4 | 12.9 |
| 80세 이상 | (168) | 45.9 | 30.6 | 25.1 | 9.2 | 2.7 | 2.2 | 1.2 | 11.1 | 11.8 |
| 최종 학력 | | | | | | | | | | |
| 무학 | (41) | 41.0 | 28.6 | 20.4 | 9.0 | 4.3 | 5.5 | 0.0 | 14.4 | 13.8 |
| 초등학교 졸업 | (209) | 49.2 | 29.0 | 17.9 | 4.6 | 2.2 | 3.1 | 1.0 | 13.3 | 16.4 |
| 중학교 졸업 | (174) | 45.4 | 27.0 | 24.0 | 8.9 | 4.0 | 7.6 | 0.0 | 9.2 | 11.9 |
| 고등학교 졸업 | (324) | 42.8 | 33.3 | 21.7 | 8.2 | 6.7 | 4.4 | 0.0 | 10.7 | 10.1 |
| 대학교 졸업 이상 | (157) | 40.7 | 33.3 | 16.6 | 12.4 | 12.4 | 3.9 | 0.5 | 14.9 | 12.3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 독거 | (174) | 46.8 | 28.5 | 22.7 | 7.9 | 3.4 | 2.8 | 0.7 | 10.0 | 13.9 |
| 비독거 | (731) | 43.7 | 31.4 | 19.7 | 8.4 | 6.6 | 5.1 | 0.2 | 12.4 | 12.1 |

60세 이후 취업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60세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공공기관 소개 |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자인의 소개 | 신문, 광고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검색 | 민간 기관 소개 | 채용 박람회 참여 | 모름/ 무응답 | 계 |
|---------------------------------|---------|------------|-------------------------------|--------------------------------|-------------|--------------|------------|-------|
| ■ 전체 ■ | (1,373) | 50.9 | 26.1 | 7.7 | 6.1 | 1.4 | 7.8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자 | (497) | 44.2 | 23.7 | 11.3 | 7.5 | 3.1 | 10.3 | 100.0 |
| 여자 | (877) | 54.7 | 27.5 | 5.6 | 5.3 | 0.5 | 6.3 | 100.0 |
| 연령 | | | | | | | | |
| 65-69세 | (426) | 43.7 | 27.3 | 10.9 | 7.2 | 2.0 | 9.0 | 100.0 |
| 70-74세 | (361) | 53.9 | 25.2 | 5.7 | 5.3 | 1.6 | 8.2 | 100.0 |
| 75-79세 | (275) | 53.6 | 23.5 | 7.1 | 7.0 | 0.6 | 8.1 | 100.0 |
| 80세 이상 | (312) | 54.9 | 28.0 | 6.0 | 4.7 | 1.3 | 5.2 | 100.0 |
| 최종 학력 | | | | | | | | |
| 무학 | (71) | 70.0 | 24.0 | 1.3 | 0.0 | 0.0 | 4.8 | 100.0 |
| 초등학교 졸업 | (365) | 54.9 | 29.2 | 3.7 | 3.5 | 0.3 | 8.3 | 100.0 |
| 중학교 졸업 | (270) | 47.9 | 29.2 | 6.5 | 8.6 | 0.0 | 7.7 | 100.0 |
| 고등학교 졸업 | (477) | 51.5 | 25.3 | 9.4 | 5.0 | 1.9 | 6.8 | 100.0 |
| 대학교 졸업 이상 | (190) | 38.7 | 18.9 | 14.8 | 12.3 | 5.1 | 10.2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독거 | (320) | 58.4 | 25.4 | 4.1 | 5.5 | 0.4 | 6.2 | 100.0 |
| 비독거 | (1,054) | 48.6 | 26.4 | 8.8 | 6.2 | 1.8 | 8.2 | 100.0 |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향후 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생계비 마련 | 용돈 마련 | 건강 유지 | 능력(경력) 발휘 | 시간 보내기 | 사람들과 사귀기 | 계 |
|----------------------|-----------------|--------|-------|-------|-----------|--------|----------|-------|
| ☐ 전체 ☐ | (1,252) | 61.2 | 19.8 | 11.2 | 4.3 | 2.5 | 1.0 | 100.0 |
| 성별 | 남자 (660) | 64.7 | 15.3 | 12.1 | 5.1 | 1.8 | 0.9 | 100.0 |
| | 여자 (592) | 57.4 | 24.8 | 10.1 | 3.4 | 3.4 | 1.0 | 100.0 |
| 연령 | 65-69세 (639) | 65.0 | 16.5 | 10.1 | 5.5 | 1.8 | 1.0 | 100.0 |
| | 70-74세 (310) | 59.2 | 22.1 | 10.6 | 3.4 | 3.1 | 1.7 | 100.0 |
| | 75-79세 (179) | 53.9 | 28.1 | 13.0 | 3.0 | 1.9 | 0.0 | 100.0 |
| | 80세 이상 (124) | 57.2 | 19.0 | 15.4 | 2.0 | 5.8 | 0.5 | 100.0 |
| 최종 학력 | 무학 (36) | 71.0 | 11.9 | 11.4 | 0.0 | 5.6 | 0.0 | 100.0 |
| | 초등학교 졸업 (228) | 66.0 | 20.4 | 10.0 | 0.0 | 2.7 | 0.9 | 100.0 |
| | 중학교 졸업 (282) | 67.8 | 20.1 | 8.1 | 0.7 | 2.8 | 0.6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497) | 59.8 | 20.5 | 11.3 | 4.0 | 3.2 | 1.2 | 100.0 |
| | 대학교 졸업 이상 (209) | 48.9 | 18.5 | 16.1 | 15.3 | 0.0 | 1.1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216) | 77.1 | 12.7 | 6.7 | 1.6 | 1.5 | 0.5 | 100.0 |
| | 비독거 (1,036) | 57.9 | 21.3 | 12.1 | 4.9 | 2.8 | 1.0 | 100.0 |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 소득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향후 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 | 사례수 (명)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계 | 평균 (만원) |
|----------------------|-----------------|----------|-------------------|----------|-------|---------|
| ☐ 전체 ☐ | (1,252) | 20.3 | 27.0 | 52.7 | 100.0 | 186.3 |
| 성별 | 남자 (660) | 9.3 | 19.7 | 71.0 | 100.0 | 228.3 |
| | 여자 (592) | 32.5 | 35.0 | 32.4 | 100.0 | 139.6 |
| 연령 | 65-69세 (639) | 7.7 | 23.6 | 68.7 | 100.0 | 225.9 |
| | 70-74세 (310) | 19.6 | 33.2 | 47.2 | 100.0 | 171.8 |
| | 75-79세 (179) | 39.7 | 28.4 | 31.9 | 100.0 | 130.5 |
| | 80세 이상 (124) | 59.4 | 26.5 | 14.1 | 100.0 | 98.9 |
| 최종 학력 | 무학 (36) | 61.9 | 30.2 | 7.9 | 100.0 | 74.3 |
| | 초등학교 졸업 (228) | 42.8 | 33.4 | 23.7 | 100.0 | 118.8 |
| | 중학교 졸업 (282) | 24.2 | 33.7 | 42.1 | 100.0 | 161.0 |
| | 고등학교 졸업 (497) | 10.8 | 25.6 | 63.6 | 100.0 | 203.7 |
| | 대학교 졸업 이상 (209) | 5.8 | 13.5 | 80.7 | 100.0 | 272.4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216) | 41.3 | 30.7 | 27.9 | 100.0 | 127.2 |
| | 비독거 (1,036) | 15.9 | 26.2 | 57.9 | 100.0 | 198.7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경험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전체 | | 사례수 (명) | 현재 참여하고 있다 | 참여한 적이 있다 |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 신청한 적이 없다 | 계 |
|----------|-----------|------------|---------------|-----------|---------------------|-----------|-------|
| ■ 전체 ■ | | (3,010) | 6.1 | 4.3 | 4.5 | 85.2 | 100.0 |
| 성별 | 남자 | (1,333) | 3.8 | 3.7 | 4.1 | 88.4 | 100.0 |
| | 여자 | (1,677) | 7.9 | 4.8 | 4.7 | 82.7 | 100.0 |
| 연령 | 65-69세 | (1,057) | 2.0 | 2.9 | 4.8 | 90.3 | 100.0 |
| | 70-74세 | (742) | 6.5 | 3.0 | 5.0 | 85.5 | 100.0 |
| | 75-79세 | (563) | 9.5 | 5.4 | 5.2 | 79.8 | 100.0 |
| | 80세 이상 | (648) | 9.2 | 7.0 | 2.6 | 81.2 | 100.0 |
| 최종 학력 | 무학 | (131) | 19.8 | 10.2 | 0.0 | 70.0 | 100.0 |
| | 초등학교 졸업 | (714) | 10.4 | 5.6 | 5.4 | 78.5 | 100.0 |
| | 중학교 졸업 | (677) | 6.3 | 3.7 | 4.3 | 85.6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 (1,073) | 2.6 | 3.0 | 4.6 | 89.8 | 100.0 |
| | 대학교 졸업 이상 | (415) | 2.8 | 4.4 | 4.1 | 88.8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 (658) | 9.4 | 6.6 | 5.6 | 78.4 | 100.0 |
| | 비독거 | (2,352) | 5.1 | 3.6 | 4.1 | 87.1 | 100.0 |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전체 | | 사례수(명) | 참여할 의향이 있다 | 참여할 의향이 없다 | 계 |
|----------|-----------|---------|------------|------------|-------|
| ■ 전체 ■ | | (3,010) | 19.9 | 80.1 | 100.0 |
| 성별 | 남자 | (1,333) | 16.5 | 83.5 | 100.0 |
| | 여자 | (1,677) | 22.6 | 77.4 | 100.0 |
| 연령 | 65-69세 | (1,057) | 19.7 | 80.3 | 100.0 |
| | 70-74세 | (742) | 21.7 | 78.3 | 100.0 |
| | 75-79세 | (563) | 21.4 | 78.6 | 100.0 |
| | 80세 이상 | (648) | 16.7 | 83.3 | 100.0 |
| 최종 학력 | 무학 | (131) | 27.0 | 73.0 | 100.0 |
| | 초등학교 졸업 | (714) | 23.9 | 76.1 | 100.0 |
| | 중학교 졸업 | (677) | 21.5 | 78.5 | 100.0 |
| | 고등학교 졸업 | (1,073) | 17.5 | 82.5 | 100.0 |
| | 대학교 졸업 이상 | (415) | 14.1 | 85.9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독거 | (658) | 23.5 | 76.5 | 100.0 |
| | 비독거 | (2,352) | 18.9 | 81.1 | 100.0 |

희망하는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형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정부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 | 사례수(명) | 공공시설 봉사 | 노노 케어 | 시장형 사업단 | 인력파견형 사업단 | 사회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 | 취약계층 지원 | 경륜전수 활동 | 계 |
|-------------------------------|--------|---------|-------|---------|-----------|--------------------------------|------------|------------|-------|
| ■ 전체 ■ | (599) | 43.4 | 19.8 | 10.4 | 8.4 | 8.3 | 7.6 | 2.0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자 | (220) | 41.8 | 13.9 | 11.2 | 11.7 | 8.3 | 8.8 | 4.2 | 100.0 |
| 여자 | (379) | 44.4 | 23.3 | 10.0 | 6.5 | 8.3 | 6.9 | 0.6 | 100.0 |
| 연령 | | | | | | | | | |
| 65-69세 | (209) | 39.2 | 19.5 | 10.4 | 12.4 | 7.3 | 8.9 | 2.3 | 100.0 |
| 70-74세 | (161) | 41.2 | 19.8 | 11.0 | 9.6 | 11.2 | 6.4 | 0.9 | 100.0 |
| 75-79세 | (121) | 45.0 | 20.6 | 10.4 | 2.9 | 9.2 | 9.5 | 2.5 | 100.0 |
| 80세 이상 | (108) | 53.3 | 19.9 | 9.5 | 5.1 | 5.1 | 4.8 | 2.4 | 100.0 |
| 최종 학력 | | | | | | | | | |
| 무학 | (35) | 58.0 | 29.1 | 2.5 | 2.7 | 2.4 | 5.3 | 0.0 | 100.0 |
| 초등학교 졸업 | (171) | 43.4 | 24.6 | 6.9 | 7.7 | 7.7 | 7.4 | 2.3 | 100.0 |
| 중학교 졸업 | (145) | 44.4 | 22.6 | 16.0 | 4.6 | 7.1 | 4.9 | 0.5 | 100.0 |
| 고등학교 졸업 | (188) | 41.9 | 14.8 | 12.2 | 12.4 | 8.5 | 8.6 | 1.5 | 100.0 |
| 대학교 졸업 이상 | (59) | 37.1 | 9.8 | 6.0 | 10.6 | 16.2 | 13.2 | 7.0 | 100.0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독거 | (155) | 47.4 | 27.8 | 7.2 | 4.0 | 5.2 | 8.5 | 0.0 | 100.0 |
| 비독거 | (444) | 42.1 | 17.1 | 11.5 | 10.0 | 9.4 | 7.3 | 2.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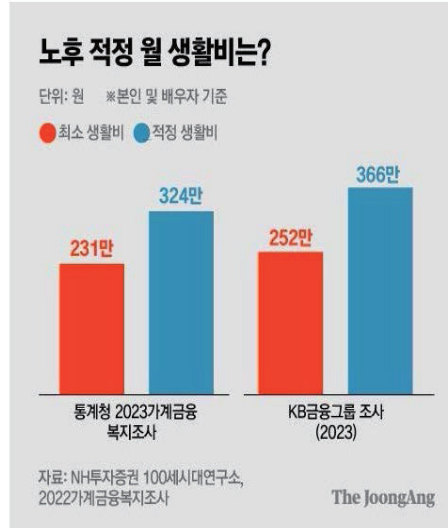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2.12.14

| Base=현재 일하는 경우 | 사례수(명)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계 | 평균(점) | | |
|-----------------|---------|----------|-------|------|------|---------|------|-------|-------|-----|
| ■ 전체 ■ | (1,254) | 0.6 | 3.1 | 3.7 | 33.2 | 58.0 | 4.1 | 63.1 | 100.0 | 3.6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677) | 0.3 | 3.0 | 3.3 | 32.5 | 58.7 | 4.5 | 64.3 | 100.0 | 3.7 |
| 여자 | (577) | 0.9 | 3.2 | 4.1 | 34.2 | 58.2 | 3.5 | 61.7 | 100.0 | 3.6 |
| 연령 | | | | | | | | | | |
| 65-69세 | (641) | 0.0 | 2.5 | 2.5 | 32.1 | 61.1 | 4.3 | 65.5 | 100.0 | 3.7 |
| 70-74세 | (331) | 1.6 | 3.7 | 5.3 | 29.9 | 60.2 | 4.5 | 64.8 | 100.0 | 3.6 |
| 75-79세 | (172) | 0.0 | 3.6 | 3.6 | 43.7 | 48.8 | 2.9 | 52.7 | 100.0 | 3.5 |
| 80세 이상 | (110) | 1.9 | 3.9 | 5.8 | 33.7 | 57.6 | 3.0 | 60.5 | 100.0 | 3.6 |
| 최종 학력 | | | | | | | | | | |
| 무학 | (35) | 0.0 | 5.6 | 5.6 | 44.0 | 50.4 | 0.0 | 50.4 | 100.0 | 3.4 |
| 초등학교 졸업 | (216) | 2.0 | 5.8 | 7.8 | 38.0 | 53.3 | 0.9 | 54.2 | 100.0 | 3.5 |
| 중학교 졸업 | (272) | 1.2 | 4.8 | 6.0 | 31.5 | 58.4 | 4.1 | 62.5 | 100.0 | 3.6 |
| 고등학교 졸업 | (530) | 0.0 | 1.9 | 1.9 | 33.3 | 61.6 | 3.2 | 64.8 | 100.0 | 3.7 |
| 대학교 졸업 이상 | (210) | 0.0 | 0.4 | 0.4 | 28.8 | 60.8 | 10.0 | 70.8 | 100.0 | 3.8 |
| 독거 가구 여부 | | | | | | | | | | |
| 독거 | (179) | 1.8 | 3.1 | 4.9 | 38.9 | 52.1 | 3.1 | 55.2 | 100.0 | 3.5 |
| 비독거 | (1,074) | 0.4 | 3.1 | 3.5 | 32.1 | 60.2 | 4.2 | 64.4 | 100.0 | 3.6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9) | 8.7 | 1.2 | 9.9 | 41.2 | 45.4 | 3.6 | 48.0 | 100.0 | 3.3 |
| 100-199만원 | (185) | 0.0 | 7.4 | 7.4 | 38.2 | 52.4 | 2.0 | 54.4 | 100.0 | 3.5 |
| 200-299만원 | (323) | 0.0 | 2.2 | 2.2 | 37.5 | 57.6 | 2.7 | 60.3 | 100.0 | 3.6 |
| 300-399만원 | (274) | 0.0 | 3.6 | 3.6 | 30.6 | 62.4 | 3.4 | 65.8 | 100.0 | 3.7 |
| 400만원 이상 | (387) | 0.0 | 1.8 | 1.8 | 27.5 | 64.0 | 6.7 | 70.7 | 100.0 | 3.8 |

노후 걱정 월 생활비

중앙일보, 남윤서, 2024.05.30



초고령 사회 '그늘'...일할 수 있는 인구, 4년 후부터 줄어든다

연합뉴스, 양종근, 2024.03.19

고용정보원, 2022~2032년 인력수급전망
경제활동인구, 28년부터 감소로 전환
빈곤 심한 고령층, 원치 않는 일 '쓸림'
2월 70세 취업자 10명 중 4명 '임시직'

저 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인구로 불리는 경제활동인구가 2028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심해지면 기업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제성장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터를 찾는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 과제

1. 일자리사업활동을 위한 자원 문제
2. 일자리사업대상에 따라 기관의 수요자(확보와 선택)문제
3. 관련 일자리 교육과 유지를 위한 재교육 문제
4.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일자리 비중에 대한 문제
5. 지속적인 동일사업유형 유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제
6. 일자리사업활동 사업기관으로서 유지와 현장의 문제
7. 일자리사업활동 주무기관으로서 관련사업수행의 문제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 일하는 노인이 행복하다.
- 노인이 일하는 사회가 행복하다.



100세 시대, 경향신문, 김다슬, 2011.12.08 서영아, 100세 카페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24.6.18, 최 현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변화 동향 ☞ 반전(反轉)과 한계(限界)

- (1) 그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
 - ☞ 경제적 가치 이외에 노인일자리 다양한 가치(사회적·문화적·환경적·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저하
 - 지난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과 관련된 확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산에 영향
 - ☞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되고, 현 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축소에도 영향
- (2) 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 규모와 예산의 반전
 - ('22. 9~12월)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쟁 및 실효성 낮은 민간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 강조만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과 비판에 직면
 - ☞ 결국 공익형 노인일자리 10% 축소안 후퇴후 전년도 규모로 복원 (★노인일자리 축소 논쟁을 일으킨 칼럼 참조)

★ <참고>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경향신문 칼럼, 2022.9) 내용 일부

고령의 빈곤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어르신의 일자리를 축소할 예산안

사회복지 분야 증가액 중 약 23.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약 2조 7천억원(약 13.0%) 증가한 노인 부문은 대부분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때문이다. 결국, 법령에 따른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을 제외하면 노인 부문 예산 증가액은 약 3천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다음으로 노인 부문에서 규모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축소에 따른 총량 감소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예산 축소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구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새 정부가 강조한 '약자 복지' 대상 중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약 10%인 6만 1천개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사회서비스형을 7만개에서 8만 5천개로, 6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한 시장형을 16만 7천개에서 19만개로 확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공익활동형 일자리 감소로 총량이 84만 5천개에서 82만 2천개로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절대적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받는 소득은 27만원에 불과해도, 대부분 생계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한다. 또한 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과 단순히 비교하여 질 낮은 일자리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월 고용동향 등 일자리 통계에서 공익형 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구분을 마련하지 않고, 노인일자리를 취업자 수 통계의 착시를 가져온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든 것은 정치권과 언론이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보다 일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6만개 이상 축소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는 것이다.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기업이 고령 노인을 선호할 가능성은 낮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를 위해 대기 중인 노인들이 지난 5월말 기준 9만명 가까운 상황을 고려하면 마지막 기회를 잃거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23. 7~12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및 2024년 예산안 확대 편성 추진,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천만 노인 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빈곤을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확대 발전 가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 마련
- (3) 2024년 예산안 및 노인인구 10% 규모로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충분치 않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공공) 노인일자리 규모의 한계
 -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일자리 확대와 한계
 -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 확대, 6년 만에 단가 7% 인상

〈 2024년도 노인일자리 현황 〉

| 구분 | '23년 | '24년 | 증감 |
|--------|---------|---------|---------|
| 총계 | 88.3만 개 | 103만 개 | 14.7만 개 |
| 공익활동형 | 60.8만 개 | 65.4만 개 | 4.6만 개 |
| 사회서비스형 | 8.5만 개 | 15.1만 개 | 6.6만 개 |
| 민간형 | 19만 개 | 22.5만 개 | 3.5만 개 |

- 베이비붐 세대('55~'63) 등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으며, 1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023년 31%에서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 계획 발표
 - ☞ 그러나 현 세대 노인의 빈곤해소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과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적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공공)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비해 항상 부족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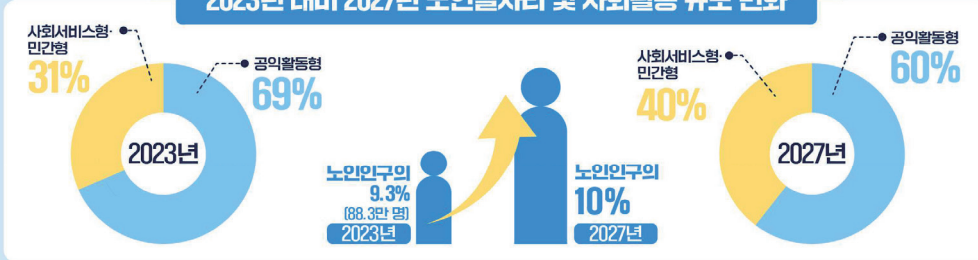
2023. 07. 27 제작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노인일자리,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3년 대비 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규모 변화



1 공익활동형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돌봄·환경재생 등 활동 확대

- ☑ 참여수당에 불가상승 반영 추진
- ☑ 활동시간과 난이도가 더 높은 **간접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 신설 검토**
- ☑ 노노(老老)케어, 자원순환·환경재생 등 **공익적 가치 높은 프로그램 확대**

2 사회서비스형 비중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모형 활성화

- ☑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15% 이상으로 비중 확대**
- ☑ 복지시설,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
- ☑ 기업 사회공헌 기금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일자리 활성화**

3 민간형 노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 ☑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공모사업 규모 확대
*실버카페 등 노인이 공동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사업장
- ☑ 노인의 취업욕구를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민간영역 일자리 발굴·확대**
- ☑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 지원 확대 (인당 90만 원 → 최대 280만 원)

4 노인일자리 제도기반 구축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본조사 2024년~)로 노인일자리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 근거 마련
-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과 교육을 체계화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2. 서울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다양한 시민의 일상과 사회서비스 영역별 사업을 연계하여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활성화

☞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과 기업이 어르신과 동행(同行 ☞ 同幸)하는 서울형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 개념에 따른 정책영역 확장 및 노인일 자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전환 필요

☞ 돌봄 중심의 협의의 복지서비스에서 시민의 다양한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영역 전반으로 확장(기본법 상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교통, 통신, 에너지, 법률 등등 ...)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가 핵심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 서울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울 시민의 일상적 삶의 질 제고 관련된 서울시 공공-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제안

○ 특히, 최근 강조되는 ESG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및 안심소득·안심돌봄 등 서울시의 대표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공모 추진

☞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및 상시적으로 제안 받아 새로운 노인일자리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 마련

○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의 일환으로 사업 간 협업 및 연계 활성화 분야 중 하나로, 각 부서별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제안 및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마련

-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과 기업 모두가 어르신과 동행(同行 ≡ 同幸)하는 서울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모델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별화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등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이를 연계하여 적용

(2) 서울형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 강화

☞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체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공공) 일자리 비중 목표 설정

-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체 노인일자리 규모 및 유형별 노인일자리 비중이 결정되지만,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한 서울시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공공) 일자리의 비중에 대한 목표치 설정
-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자체 사업으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공공) 일자리가 차지하는 최소한의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3) 서울형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서울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도출 및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등을 강화
- 특히, 경제적 가치 이외에 서울형 노인일자리 다양한 동행 가치 (사회적·문화적·환경적·공동체적)에 대한 평가와 인식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강화 필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¹⁾²⁾

최인혁 부연구위원(KIPF)

2024. 6. 18.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부표 1> 참조)
 - 공익활동형은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임
 -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임
 - 민간형은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으로 세분되며, 60세 이상이 대상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표량 및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부도 1] '가' 참조)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103만개, 사업예산은 2조 264억원³⁾
 - 사업유형별 창출실적에서 공익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부도 1] '나' 참조)
 - 단순 계산된 일자리당 (국비) 예산의 경우 2012년 기준 0.8백만원에서 2022년 기준 1.7백만원으로 2배 가량 상승

1) 본 자료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의 종합토론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토론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토론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2) 본 자료의 내용 일부는 토론자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축효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에서 발췌·정리된 것임을 밝힙니다.
3)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4. 1. 1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도별 창출 목표·실적 및 노인인구 현황 등은 <부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확정내시 사업량을 기준으로 경기(12.9%)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서울의 비중은 10.5%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임
 - 사업량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노인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0.5%)임

2.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대)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영방향을 설정할 필요
 - 가령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최인혁·조희평, 2023), 사업 대상 조정의 필요성 검토 가능
 - 다만 동 사업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령층의 후생 증가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대상 조정의 필요성 검토 시 사업 참여로 기대될 수 있는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향후 동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노동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동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확대 추진 정책이 고령층 노동 시장은 물론 다른 연령대 노동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요구됨
 - 아울러 충분한 사전평가를 거쳐 정책이 확대 운영된 이후 실제 발현된 영향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
- 끝으로 고령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직접일자리 유형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배분할 필요

4) 이하 내용은 최인혁·조희평(2023),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표 1> 참조)에서 직접일자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주요국 대비 높다고 할 수 있음⁵⁾
-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유형에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고령층 내 존재할 수 있는 이질적인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

<표 1>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전체 | 직접 일자리 | 직업훈련 | 고용 서비스 | 고용 장려금 | 창업지원 | 실업소득 유지·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 |
|----|---------|-----------|--------|-----------|-----------|--------|---------------|--------------|
| 예산 | 291,914 | 35,569 | 26,112 | 16,389 | 43,123 | 31,147 | 129,172 | 10,401 |
| 비중 | 100.0 | 12.2 | 8.9 | 5.6 | 14.8 | 10.7 | 44.2 | 3.6 |

자료: 고용노동부(2024. 4. 17.),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5) OECD Going Digital Toolkit, "Public spending o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s a share of GDP," <https://goingdigital.oecd.org/en/indicator/42>, 검색일자: 2024.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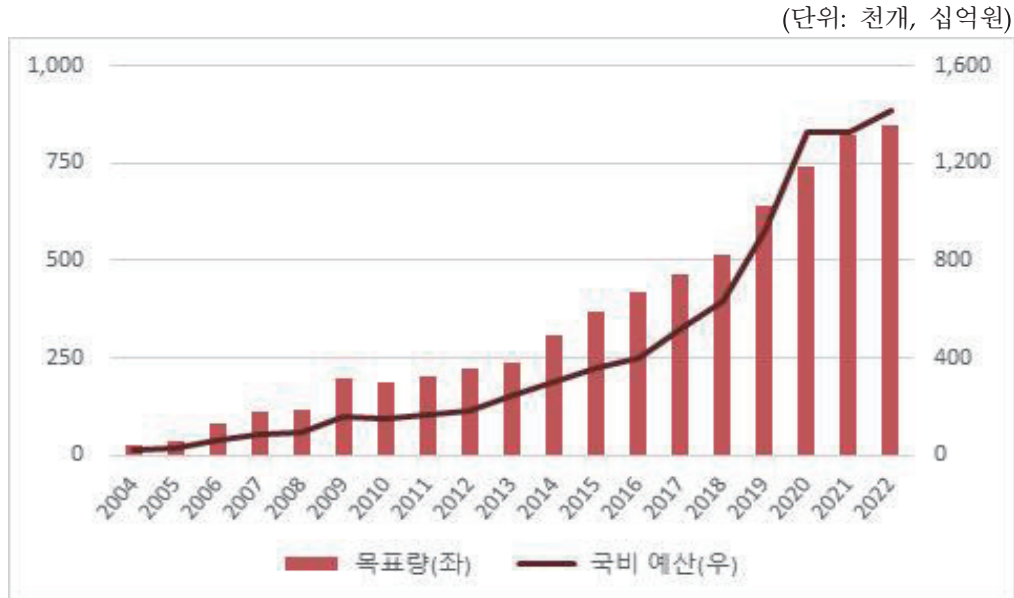
<부표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별 세부내용

| 유형 | 내용 | 대상 | 사업량(천개) | | 월평균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
| | | | 2023년 | 2024년 | | |
| 공익활동형 |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년케어·교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608 | 654 | 30 (3시간, 10일) | 월 29만원 (11개월) |
| 사회서비스형 | -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65세 이상 (일부 60세) | 80 | 141 | 60 (3시간, 20일) | 월 76.1만원 (10개월) |
| 선도모델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5 | 10 |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 |
| 시장형 사업단 |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 카페 등) | | 45 | 58 | -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 |
| 취업 앞선형 |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청소·경비 등) | 60세 이상 | 88 | 95 | - 일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
| | -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 | 55 | 70 | -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 40만원 × 6개월) 지원 | |
| | -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 | 2 | 2 |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
| 고령자 친화기업 | | | | | | |
| 계 | | | 883 | 1,03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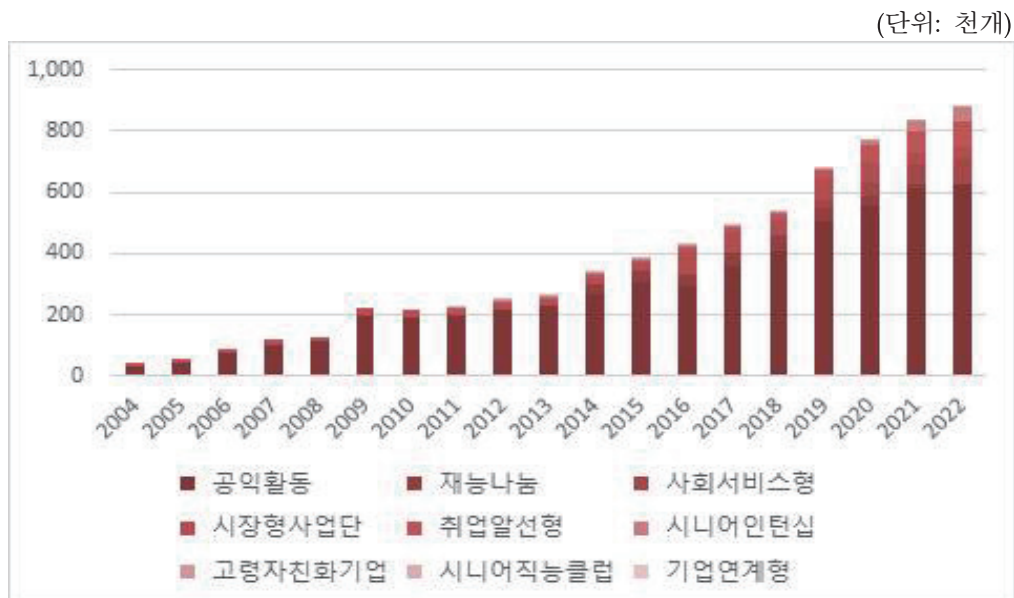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4. 1. 18.),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p. 3

[부도 1]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량, 예산, 실적

가. 목표량 및 예산



나. 사업유형별 창출실적¹⁾



주: 1) 2022년 사회서비스형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도 포함됨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3),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 pp. 33-34, <표 2-1-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지역별(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목표·실적 및 노인인구 현황(2022년)

(단위: 개, %, 명, %)

| 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창출목표 및 창출실적 | | | | | | 노인인구 현황 | | | | | |
|----|----------------------------------|---------|-------------------------|---------------------------|---------|-------|---------|------------|------|-----------|------|--|
| | 창출목표 | | | 창출실적 | | | 총인구 | 60세 이상 | | 65세 이상 | | |
| | 확정내시 사업량(A) | 비중 | 배정 사업량 ¹⁾ | 추진실적 ²⁾ (B) | 공익활동 | 공익활동 |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
| 총계 | 727,205 | (100.0) | 734,437 | 760,498 | 626,391 | 104.6 | 850,438 | 13,485,327 | 26.2 | 9,267,290 | 18.0 | |
| 서울 | 76,135 | (10.5) | 76,701 | 77,701 | 63,569 | 102.1 | 88,043 | 2,376,138 | 25.2 | 1,658,207 | 17.6 | |
| 부산 | 53,915 | (7.4) | 53,809 | 56,213 | 44,496 | 104.3 | 63,055 | 3,317,812 | 30.6 | 712,412 | 21.5 | |
| 대구 | 29,760 | (4.1) | 29,772 | 30,522 | 25,198 | 102.6 | 34,155 | 2,363,691 | 26.9 | 435,698 | 18.4 | |
| 인천 | 46,051 | (6.3) | 46,520 | 49,676 | 39,933 | 107.9 | 56,097 | 2,967,314 | 24.0 | 463,850 | 15.6 | |
| 광주 | 28,240 | (3.9) | 28,483 | 31,525 | 26,925 | 111.6 | 34,625 | 1,431,050 | 22.8 | 222,970 | 15.6 | |
| 대전 | 20,372 | (2.8) | 20,356 | 20,412 | 16,817 | 100.2 | 22,984 | 1,446,072 | 23.9 | 232,663 | 16.1 | |
| 울산 | 13,529 | (1.9) | 13,529 | 13,853 | 11,163 | 102.4 | 15,432 | 1,110,663 | 23.4 | 163,812 | 14.7 | |
| 세종 | 3,476 | (0.5) | 3,432 | 3,352 | 2,590 | 96.4 | 3,727 | 383,591 | 15.9 | 40,219 | 10.5 | |
| 경기 | 93,751 | (12.9) | 93,986 | 99,301 | 78,368 | 105.9 | 112,316 | 13,589,432 | 22.2 | 1,992,807 | 14.7 | |
| 강원 | 56,175 | (7.7) | 58,483 | 58,644 | 49,633 | 104.4 | 65,957 | 1,536,498 | 32.5 | 349,874 | 22.8 | |
| 충북 | 31,798 | (4.4) | 32,224 | 33,408 | 28,542 | 105.1 | 37,594 | 1,595,058 | 28.8 | 316,939 | 19.9 | |
| 충남 | 39,334 | (5.4) | 39,192 | 40,121 | 32,297 | 102 | 44,321 | 2,123,037 | 29.0 | 436,895 | 20.6 | |
| 전북 | 65,442 | (9.0) | 65,691 | 69,380 | 57,615 | 106 | 75,882 | 1,769,607 | 31.9 | 410,619 | 23.2 | |
| 전남 | 52,938 | (7.3) | 53,540 | 53,736 | 47,594 | 101.5 | 59,392 | 1,817,697 | 34.3 | 457,481 | 25.2 | |
| 경북 | 51,813 | (7.1) | 54,153 | 55,956 | 47,137 | 108 | 62,481 | 2,600,492 | 33.3 | 618,275 | 23.8 | |
| 경남 | 52,962 | (7.3) | 53,046 | 54,916 | 45,134 | 103.7 | 61,376 | 3,280,493 | 28.4 | 638,801 | 19.5 | |
| 제주 | 11,514 | (1.6) | 11,520 | 11,782 | 9,380 | 102.3 | 13,001 | 678,159 | 24.6 | 115,768 | 17.1 | |

주: 1) 배정사업량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내시 목표사업량과 차이가 있음

2) '공익활동'은 '누적참여자수 - 중도포기자수로 산출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누적참여자수로 산출함

자료: 노인인력개발원(2023),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 p. 55, <표 2-1-17>, p. 56, <표 2-1-18>, p. 170, <표 3-1-6>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토론문>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방안 - 관(官) 주도형 -

고광선(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교육학 박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올해 말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저출생·고령사회의 도래는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배재운, 2020), 노년부양비 또한 2023년에는 26.1명에서 2060년에 90.4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예상되기에 사회문제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9).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복지정책 개선과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노년기 문제인 노인의 소득상실, 역할상실, 지위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대책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일이란 생존수단 자체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성취감 획득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부심으로서의 일이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노인에게 일이란 소득 보장의 수단 뿐만 아니라 심리적·신체적 측면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렇듯 노인은 일하는 그 자체로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의 근로환경, 급여,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일자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AI(인공지능)가 전기만큼이나 흔한 기술로 자리 잡은 사회인 AI 소사이어티 시대라 하는 오늘날 역시나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 파악이 요구되기에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노인이 젊었을 때 했던 분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파트타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직 경력을 인정해주고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이 자부심을 갖고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은 주로 단순 노무직 위주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현 상황을 반영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 인구 급증의 현 상황을 반영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등 노인 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더더욱 급증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돌봄이나 애완동물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젊은이들은 케어를 받음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어내는 등 현 상황에 맞춘 일자리들을 창출해야 한다.

즉, 아이 엄마들이 시장갈 때, 외출할 때, 헬스장에 갈 때 경

로당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불일을 다 마친 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돌보는 노인은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노인으로 할 것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대한수의사회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수의사협회로부터 애완동물관리사자격증을 받은 후 애완동물 관리 또한 폐교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건물 등을 임대하여 애완동물 보호소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출근할 때나 여행 등을 갈 때 애완동물을 맡기면 현재 애완동물 호텔보다 저렴하게 파트타임으로 돌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3. 해외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해외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모범 사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EU와 일본의 탄력근무제, 정년 연장 등 노인들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공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4. 미래 노인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 방향을 검토하여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의 노인세대들, 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여 이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정도가 높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는 신세대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추진 방향성을 갖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80대 어르신들이 주류이며, 또한

노인 일자리도 65세~70세, 70세~75세, 75세 이상 등으로 연령 별 구분을 통해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

5. 서울시만의 새로운 일자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자리 모형은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동기적 측면에서 적합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보충적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서울시는 복잡한 버스·지하철 노선과 심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기 십상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쉼터가 서울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현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스마트쉼터 설치 업체(드웰링)와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쉼터 환경미화 및 점검 관리 활동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 노인 특화 전문 자격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취득반을 노인 특화형으로 운영하는 식의 노인만을 위한 전문 자격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산율과 반대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은 5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흐름에 맞춰 서울시연합회는 서울형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제도는 존재하지만, 노인 특화형으로 노인만

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여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만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 확보에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등 일자리 현장의 노인 욕구 충족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일자리 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의 유입 및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 지역사회 체계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조사를 실시, 미래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재윤. (2020). 한국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특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3), 291-301.

김병철. "고령화 사회 노인일자리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09.

손다윗.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3.

이영선. "한국의 노인일자리 창출 최적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9.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이수미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준비지원팀장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서울시는 2002년부터 노년기 소득보전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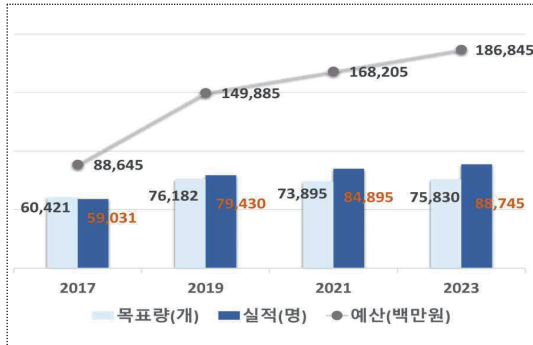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여전히 1위를 기록하여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만 5천개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고, 2024년 2,40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보다 1.4만개가 늘어난 총 8만 9천개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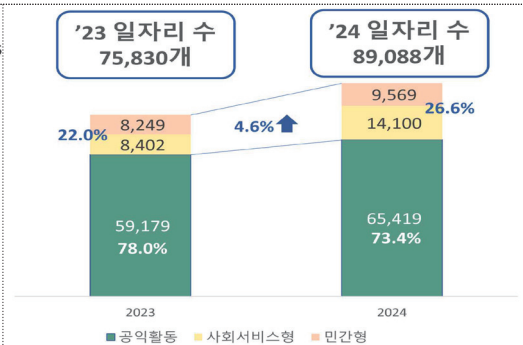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노년기로 본격 진입하면서 신노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지난해 22%에서 26.6%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사업유형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220여개의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규모·예산 추이>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추이>



한편 2025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기존 어르신 일자리 정책만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 3월말 기준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176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근로활동 참여 의향이 41.6%이며, 이 중 6% 정도만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고도의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경제적 자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으로,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단순한 소득보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와 자아실현 등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노년층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할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 이후의 삶을 남은 여생이 아닌 제2막, 제3막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 구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취업훈련 및 민간 일자리 연계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어르신 취업훈련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기존 어르신 취업훈련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개발을 위한 기업 협력 모델을 기획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인력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자치구별 1개소, 25개소)에도 취업상담 및 알선인력 1~2명 배치해 연간 약 4만건의 알선을 통해 4천건의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4. 3월 GS리테일과의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을 통해 부담없는 소일거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우리동네 도보배달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명 우선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70명이 넘게 신청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였습니다.

금번 ‘우리동네 도보배달원’은 재정투입 없이 추진하는 제1호 민간협력형 일자리이며, 앞으로도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간일 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학계, 연구위원,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연구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영 고문은 앞으로 향후 20년간 60년대생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경험해 왔고 모바일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60년대생이 주도하는 초고령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고갈되어 가는 비관적 전망 속에 고령 인구를 경제활동 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된 내용과 이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잘 정리하여 향후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김은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토론문>

노인일자리 현황 사례분석 및 제언

김은숙(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 기술·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기도 전에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올해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통계청은 2025년에는 고령자가 인구의 20.6%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100세 이상 노인' 8,920명 11년 만에 7.4배 늘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문제, 소득과 건강의 상실, 지위와 역할 상실, 사회 참여의 기회 상실, 정보단절, 문화소외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국가적으로도 부양비의 증가로 향후 국가 경제력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04년 25,000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

회기준법 제11조를 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문제의 종합적 예방과 민관이 협력을 하여 노인의 능력 수준에 맞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②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써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이 있다.

③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로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적합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운송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터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유형이 있다

II. 본론

1.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사업'과 '대전시연합회 노인일자리

사업'

서울시연합회는 서울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1970년 창립 이후 서울 25개 지회, 26개 노인대학, 노인여가복지시설 3,413개 경로당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사업

(1)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470명)

- 지하철시각장애안내도우미사업 : 시각장애인에 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시각장애인에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등 이용지원 지하철 이용 시각장애인에 역사 밖 근거리 목적지까지 안내

-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사업 : 경로당 운영규칙 및 경로당 생활예절,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생활정보, 건강상식 등 안내

(2)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20명)

-반려동물실버파트너사업 :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환경정리 및 방역, 펫티켓 홍보 활동,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이용수칙 안내 등의 민원 업무 지원

-샛강지킴이사업 : 샛강 프로그램 운영 보조 지원(텃밭관리, 환경정화 등)

(3) 시장형(43명)

- 지하철택배사업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등 각종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2) 대전시연합회 노인일자리사업

대전시연합회는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창립된 이후 5개구 지회와 828개소의 경로당, 그리고 34,0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진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공공시설 3개, 노노케어1개) 450명
 - 도시철도도우미 : 대전도시철도 22개역에 배치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 안전 도모와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여도 향상

- 가사돌보미(노노케어) :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구방문,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 노노케어 활동지원사업

- 클린공원 환경지킴이 : 주거지역내 근린공원 쓰레기줍기,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

- 함께타유 환경지킴이 : 주요 도로변 유개시내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제거, 거미줄제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로 쾌적한 대중교통문화 조성기여

(2) 사회서비스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사업 (50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상담, 홍보활동,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일본은 1970년에 한국보다 3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또한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

는 비중이 20% 이상)를 맞이한 일본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퇴직을 한 60세 이상의 신체가 건강하고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기반을 하는 일 또는 임시적이고 단기간을 기본으로 하는 단순 작업인 pc강사, 복지가사서비스, 여행가이드,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실버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 일하는 고령자는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 보장은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기업, 가정,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거리를 위탁 받아 회원인 고령자와 연결을 해줌으로써 취업 및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지원 운영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기업이 생각을 바꾸도록 격려하고 매칭하며, 고령자가 미래의 제2의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 도는 고령자가 '평생 활약하는 직장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고령자 고용 지원 사업'으로서 다음 4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개의 사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1) 도쿄 제2 직업 학교

65세 이상의 의욕적인 시니어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시니어 예비군이 'Active for Life'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의 제2의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중장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시니어 준비반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실시해,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이해의 촉진과 제2의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1.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
2. 시니어 진학 단체 강좌 (55 ~ 64 세)
3. 기업 및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강좌
 - 기업용 강좌
 - 중장년층을 위한 강좌

(2) 도쿄 시니어 취업 추진 및 시험 65 프로젝트

1. 도쿄 커리어 트라이얼 65

이 사업은 일하는 노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기업은 '고령자 활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의 취직 요구가 높은 사무직, 영업직, IT 기술직을 중심으로 파견 기업을 소개한다. 또, 도쿄 도는 주최 기업에의 파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배 인재의 활용을 향한 첫걸음을 지원한다.

2. 기업을 위한 시니어 고용 촉진 세미나

고위 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니어 채용의 이점이나 시니어 인재의 활용 방법, 합격 준비, 그 외 시니어 채용의 포인트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3) 시니어 잡 엑스포

시니어 취업의 모멘텀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일할 의욕이 있는 시니어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벤트를 개최함과 동시에 고령자와 기업의 매칭을 목적으로 한 합동 면접회도 개최한다.

- 토크쇼 (온라인으로도 참가 가능)
- 고령자를 위한 취직 지원 세미나 및 건강 관련 세미나(온라

인으로도 참석 가능)

- 이벤트 부스에서는 시니어 취업을 지원하는 단체의 부스, 헬로 워크, 도쿄 잡 센터, 액티브 시니어 취업 지원 센터 등이 출연하여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 측정을 시행하며 기업별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 등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부스에서는 시니어 면접, 시니어 채용에 열심인 기업의 참가로 면접을 실시한다.

(4) 시니어 고용 사례 연구 보급 계발 프로젝트

고용 안정화법은 기업이 65세에서 70세 사이의 고용 기회 확보에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 도쿄의 구직자수나 65세 이상의 취업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65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하는 고령자도 많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고령자 개개인이 자신의 의욕과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노인 활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위해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포인트, 고령자를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기업에서의 고령자 활용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고령자 고용 사례 연구집'과 고령자 활용을 위한 5개 기업의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동영상 제작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도내 기업의 고령자 고용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버인재센터사업은 앞으로도 고령자의 취업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 고령자가 자주적으로 관련 서비스에 참가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및 고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증대를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한 고령층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로 전망된다.

*일본은 신생 기업 직원 대부분 7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해서 음식점·식품 개발·월간지 창간 등 새로 시작한 사업마다 모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최근 『日 초고령 마을에 '할머니 비즈니스' 대박』 기사를 보면 식품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중 대부분이 75세 이상 할머니들이라고 한다. 할머니들은 식품개발 및 제조에 주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특산요리법과 할머니들의 최신 유행하는 패션, 헤어스타일, 인생상담 코너로 구성된 '바짱(할머니) 신문' 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해 할머니들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가 소문로 퍼져 지난 3월에는 1만 2000부를 돌파함.

- 우키하노다카라 오쿠마 미쓰루 대표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노인을 짐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고 있다”며 노인은 함께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동료들로 얼마든지 이들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출처: 조선일보 2024년 6월 5일 국제기사).

*미에현 쓰시의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이케다 키누씨 어르신은 97세 현역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젊은 간호사들 못지않게 97세의 이케다 키누씨 어르신은 환자를 돌보는 몸의 움직임과 순간순간 발휘하는 순발력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출처 : '죽을 때까지 일한다.' 97세 현역 간호사의 삶의 방식이란? CBC TV 2022년 5월 11일 방송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특파원에 근무하면서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연구 한 김웅철 작가의 2024년 2월 발매된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에서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일본이 극복하며 대처하는지 알 수 있다.

3.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참여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았으며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우울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노인들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돼 이는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은 노인들의 유용감과 자신감을 심어 준다.

4.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23년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발행한 미담사례 아름다운 사람들 책자/2024년 반려동물실버파트너사업 3차 활동 교육 시간에 참여자들의 의견 중에서 인용함.

- 노인일자리는 출·퇴근길을 느낄 수 있는 직장과 같다.
- 노인일자리는 自給自足(자급자족)이다.
- 노인일자리는 보약보다 더 좋은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 노인일자리는 늙음을 멈추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만족

도가 총만하다.

- 노인일자리는 餘生(남은 삶)이다.
- 노인일자리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나의 감각이다.
- 노인일자리는 내 삶의 활력소이다.
- 노인일자리는 커피 한 잔 편하게 사줄 수 있는 생활의 여유다.
- 노인일자리는 三食(세끼밥)이를 물리칠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노인일자리사업은 나의사회다!!!

노인일자리를 담당한 지 3년째!!!

노인일자리와 나, 노인일자리와 어르신은 필수불가분의 관계다!!!

꿈 꿀 수 없는 사람,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도 꿈을 꾸게 만들고 삶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노인일자리!!! 이렇듯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꿈을 실어주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주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기게 하는 곳, 만나면 좋은 친구 같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필수불가분의 관계이다. 다양한 범주의 다양한 노인일자리에서 다양한 어르신들을 3년째 만나고 있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나의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각양각색의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나는 어르신들로 인해 나의 표정도 각양각색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섬김과 돌봄의 정신을 바탕으로 갈수록 메말라 가는 감정과 이기적으로 변하는 현실의 사회 속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치 있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위해 채움과 비움을 적절하게 활용

하여 오늘도 나는 어르신들의 감각을 깨우고 나의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고 경쾌하며 설렌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면서 나는 훌륭한 담당자보다는 어르신에,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담당자가 되고 싶다. 쾌적하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건강을 되찾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어르신으로 행복을 느끼며 퇴직 후 위축되고 잃어가는 자신감을 당당히 되찾아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노인일자리 20주년을 축하 축하합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개수는 103만 개로 확대하여 어르신 10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100세 이상 노인' 8,920명 11년 만에 7.4배 늘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돌파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퇴직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혜택이나 직업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시점에서 대비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기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가치성 회복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노년기의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자립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건강한 삶이 훼손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인일자리는 꼭 필요하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는 꼭 필요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무조건 아무거나 선호하지를 않는다. 양적인 면 보다는 질적인 면의 일자리를

추구한다. 어르신들과 일자리에 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주어진 사업에 책임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런 어르신들도 있다. “활동 시간이 적고 편한 일자리 없나요?”, “급여가 많은 일자리는 없나요?” 등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별 어르신들 활동 참여 기간이 짧은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급여에 비해 활동 시간이 길고 업무가 힘든 경우였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 사회서비스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중도포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초고령사회를 극복한 일본의 기업처럼 나이와는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기업에서 현역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늘도 나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시는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규칙적이고 계획된 삶을 채워 주기 위해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어르신들의 인생 2막, 두 번째 직업을 노인일 자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가치 있는 존재감을 느끼며 원하는 꿈을 꾸고 자존감을 높여 긍정적인 정서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는 저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김종원

일상생활지원센터(주) 대표





일상생활지원센터

노인일자리창출 사례 분석에 따른 제언

2024.06.18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
이사 김종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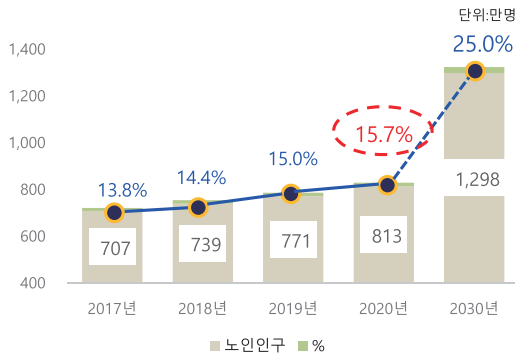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고령화 현황
 - 4차 산업혁명
 - 23년 노인일자리 분포 현황
 - 노인일자리 운영기관 및 일자리 현황
2. 일상생활지원센터
 - 설립목적
 - 사업모델
 - 협력체계 구축
 - 거점시설
 - 서비스 추진
3. 실버택배
 - 도입배경
 - 노인에게 맞게 업무 단순/세분화 진행
 -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
 - 거점 & 일자리수 현황
4. 거점폐점
 - 원인 및 개선방안
 - 사례1_노원 상계9동 경로당
 - 사례2_인천연수
5. 노인일자리 확대
 -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 사례1_60+일상터_위스데이
6. 일자리 종류
 - 사례1_택배/우편접수 대행서비스
 - 사례2_시니어 라이딩
 - 사례3_등하원 돌봄서비스
 - 사례3_시니어생산물(지역 특산물) 판매
7.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 정책제언

1. 추진배경

고령화 현황

대한민국 인구고령화는 2020년 15.7%지나 2030년에는 25.0%를 초과한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되고, 2017년 노인빈곤율 43.8%에서 공공일자리 및 정부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조금씩 개선시키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인빈곤층은 늘어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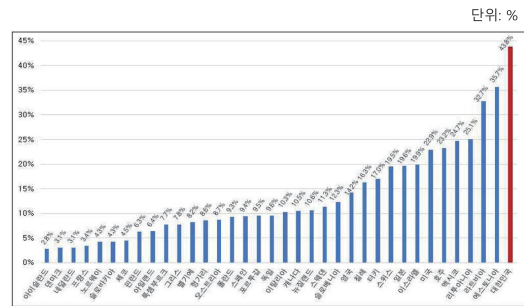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30년 |
|------|-------|-------|-------|-------|-------|
| 노인인구 | 707 | 739 | 771 | 813 | 1,298 |
| 전체인구 | 5,123 | 5,132 | 5,155 | 5,178 | 5,192 |
| 노인% | 13.8 | 14.4 | 15.0 | 15.7 | 25.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정책 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

고령계층 빈곤문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OECD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19.07.29. 인출)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노인빈곤율 | 47.5 | 47.2 | 44.7 | 46.7 | 4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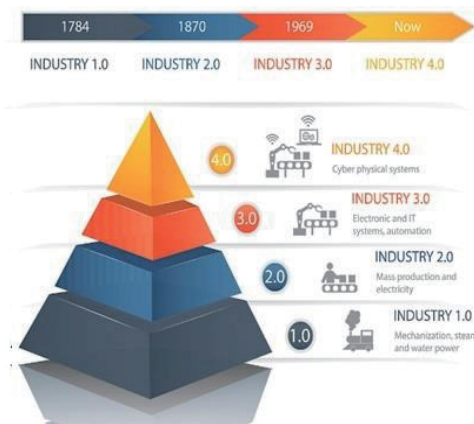
OECD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령계층(65세 이상)의 상대적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3.8%를 기록하고 있다.

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온라인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로봇, 인공지능(AI)을 통해 업무자동화가 가속되어 새로운 형태의 고객접점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실정임

4차산업의 발전



4차 산업 혁명 디지털세계와 물리세계를 연결한 사이버물리시스템



1. 추진배경

23년 노인일자리 분포 현황

23년 전체 노인일자리는 88.3만개로 늘어났으나 시장형 일자리는 4.5만개로 19년 6.6만개 보다 2.1만개(34%)
 ▼감소한 실정으로 공공일자리가 증가하고 시장형(경제 협력) 일자리는 수량적,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 | | | |
|------|---------------|---------------------|---|------|
| 근로능력 | 공공형 일자리(80%) | | 민간형 일자리(20%) | 임금수준 |
| ↑ 높음 | 사회서비스형(8만개)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5천개) | 시니어인턴십(5.5만개) | ↑ 높음 |
| ↓ 낮음 | 공익활동형(60.8만개) | | 취업알선형(8.8만개) 고령자친화기업(2천개) 시장형사업단(4.5만개) | ↓ 낮음 |
| | ← 사회 공헌적 | | 시장 친화적 → | |

요약그림 1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유형별 비중(2023년 기준)

1. 추진배경

노인일자리 운영기관 및 일자리 현황

19년 전국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평균 72세로 노인일자리 참여 연령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하면 24년 현재 노인들의 노동력은 시장 경쟁력이 없는 실정임.

노인일자리 사업 & 수행기관 현황

(기준 : 2019.12.31., 단위 : 세 명, %)

| 구분 | 평균 연령 | 누적참여 인원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세 | 85세 이상 | |
|----------|---------|----------------|---------------|---------------|---------------|---------------|--------------|--------------|-----------|
| 2019년 총계 | 72.2 | 54,585 (100.0) | 5,587 (10.2) | 12,748 (23.4) | 16,847 (30.9) | 13,705 (25.1) | 4,793 (8.8) | 905 (1.7) | |
| 2019년 총계 | 72.0 | 66,972 (100.0) | 7,863 (11.7) | 15,936 (23.8) | 20,120 (30.1) | 15,822 (23.6) | 5,960 (8.9) | 1,271 (1.9) | |
| 사업유형 | 공동작업형 | 73.3 | 15,017 (22.4) | 1,380 (9.2) | 2,936 (19.6) | 4,128 (27.5) | 4,060 (27.0) | 1,920 (12.8) | 593 (3.9) |
| | 제조판매형 | 70.7 | 20,141 (30.1) | 3,321 (16.5) | 5,738 (28.5) | 5,705 (28.3) | 3,812 (18.9) | 1,335 (6.6) | 230 (1.1) |
| | 서비스제공형 | 72.1 | 31,814 (47.5) | 3,162 (10.0) | 7,262 (22.8) | 10,287 (32.3) | 7,950 (25.0) | 2,705 (8.5) | 448 (1.4) |
| 기관유형 | 지자체 | 74.3 | 1,895 (2.8) | 94 (5.0) | 293 (15.5) | 556 (29.3) | 601 (31.7) | 301 (15.9) | 50 (2.6) |
| | 시니어클럽 | 71.9 | 46,664 (69.7) | 5307 (11.4) | 11281 (24.2) | 14322 (30.7) | 11088 (23.8) | 3937 (8.4) | 729 (1.5) |
| | 대한노인회 | 74.2 | 5,220 (7.8) | 433 (8.3) | 882 (16.9) | 1253 (24.0) | 1520 (29.1) | 829 (15.9) | 303 (5.8) |
| | 노인복지관 | 71.4 | 4,043 (6.0) | 485 (12.0) | 1062 (26.3) | 1325 (32.8) | 832 (20.6) | 272 (6.7) | 67 (1.6) |
| | 종합사회복지관 | 72.4 | 1,056 (1.6) | 130 (12.3) | 229 (21.7) | 298 (28.2) | 252 (23.9) | 115 (10.9) | 32 (3.0) |
| | 노인복지센터 | 71.3 | 861 (1.3) | 111 (12.9) | 243 (28.2) | 256 (29.7) | 174 (20.2) | 62 (7.2) | 15 (1.8) |
| | 기타 | 70.5 | 7,233 (10.8) | 1303 (18.0) | 1946 (26.9) | 2110 (29.2) | 1355 (18.7) | 444 (6.1) | 75 (1.1)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19.

사업 종류

| 구분 | 사업단수 | 형태 | 비고 |
|--------|-------|-----------------------|-------------------------|
| 공동작업장 | 204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E-01) | 시장형 노인일 자리 사업단 |
| 주말농장 등 | 78 | 지역영농사업(E-02) | |
| 수제품제작 | 138 | 기타 공동작업형사업(E-03,10) | |
| 특산물 등 | 215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E-04) | |
| 수공업 | 53 |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E-05-10) | |
| 카페(식당) | 258 | 매장운영사업(E-06) | |
| 실버택배 | 88 | 아파트택배사업(E-07) | |
| 지하철택배 | 13 | 지하철택배사업(E-08) | |
| 세차, 세탁 | 21 | 세차 및 세탁사업(E-09) | |
| 합계 | 1,068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8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황

2. 일상생활지원센터

설립 목적

일상생활지원센터는 O2O플랫폼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실버택배를 확대하고 지역에 맞는 3대 핵심가치 "친환경 사업확대, 지역 사회 기여, 취약 계층 기반으로 신규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설립 됨

일상생활지원센터 전략체계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추진 방향

일상생활지원센터는 고령화, 환경오염, 소득 불평등, 신화 등 사회적 이슈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친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여" 3대 핵심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앞장서는 기업의 사회적, 사업적 가치를 실현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CSV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CSV 추진체계

각 지역에 "일상생활지원센터" 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들과 협업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는 추진체계 구축 함.

2. 일상생활지원센터

사업모델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편의서비스를 연계하여 오프라인 거점을 구축하고 O2O플랫폼 기반의 생활편의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last mail 사업모델 임.



※ 용어정리

- 일상생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플랫폼
- 일상타: 실버택배 거점
- 생활App: 실버택배 마을공동체 시스템
- 실버택배: 거점기반의 택배배출 및 부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

2. 일상생활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60+일상터 생활편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시니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CSV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 | |
|---|--|---|--|
|  <p>예산 · 정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일자리예산지원 · 일자리 수행기관 관리 · 지자체 협력 유도 |  <p>택배 물류 · N/W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배송장비 투자 · 택배 물량제공 · 물류 및 사업 지원 · O2O서비스 접목 |  <p>부지 · 행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부지 지원 · 행정적 지원 · 부가사업 모델 발굴 |  <p>인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참여자 채용 · 교육 및 관리 |
|---|--|---|--|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 창출확대

2. 일상생활지원센터

거점시설

일상생활지원센터는 마을 거점기반의 생활편의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마을 거점공간 예시

거점의 다양한 시설 및 일자리 참여자

거점 실제 사진



배송중인 마을배송원 "워커"



2. 일상생활지원센터

서비스 추진

일상생활지원센터는 마을 거점기반의 생활편의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실버택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음.

실버택배



택배화물 배송은 참여 노인들 (Walker)로 구성함

→ 택배업무 전후로 다른 서비스도 수행

→ 다른 배송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수량 확대 가능

< 서비스 확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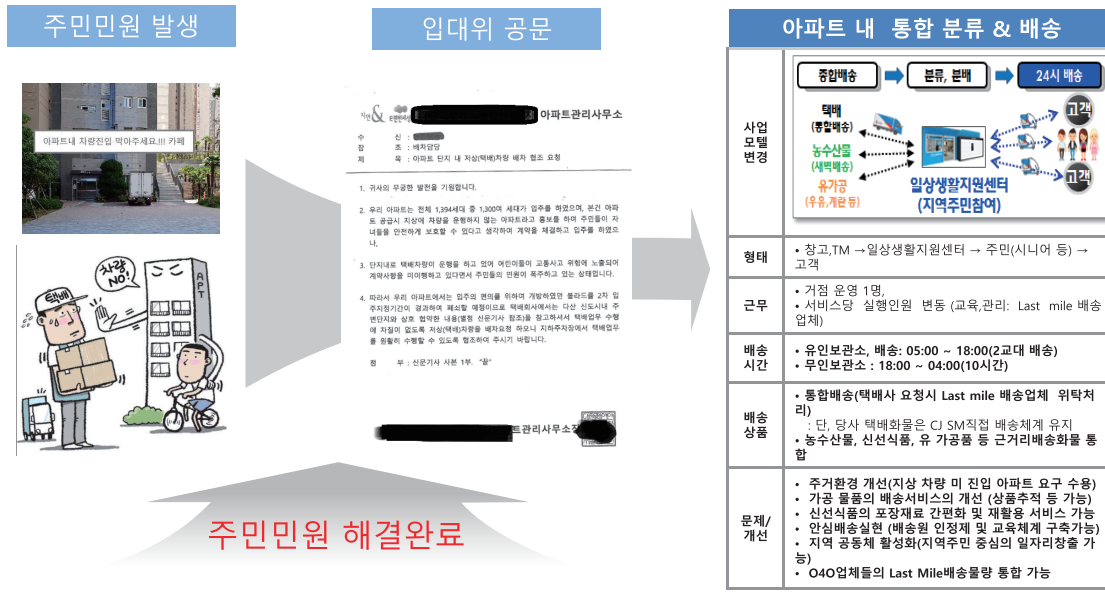
고정일

- 쉬운 택배/우편보내기
 - 중고거래와 연결하여 활성화 : 비대면 중고거래를 원하는 주민용
 - 등기보내기 : 대행수수료 1,000원으로 등기를 대신 보내줌
 - 마을매장의 배달대행
 - 배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규모매장의 배달대행 (반찬가게 등)
 - 전통시장의 배달대행 : 네이버 전통시장온라인 주문과 연결
 - 산지직거래 서비스
 - 산지직거래 **다이렉트 서비스** : 주민들이 산지직거래를 공동구매 형태로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물류적으로 지원함 (상품선정은 주민들이 하고 물류 및 공동구매Site만 제공)
 - 구독경제 서비스
 - 생수 (자체 브랜드화 검토), 쌀, 계란, 라면 등 정해진 수량이 늘 소비될 수 있는 물품의 구독경제 구현
 - 친환경(무포장)생필품 : 무포장삼푸 등

3. 실버택배

도입 배경

공동주택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 및 안심택배 실현을 위해 지상차량 통제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일상터를 구축하여 통합배송을 실시함으로써 배달기사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함



3. 실버택배

노인에게 맞게 업무 단순/세분화 진행

택배물량 증가와 산업자동화로 기존 차량형 1명의 배송 업무를 7명이 일하는 형태로 세분화하여 "분류, 서틀, 거점 운영, 거점배송원이라는 신규일자리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자 대한 사회이슈 해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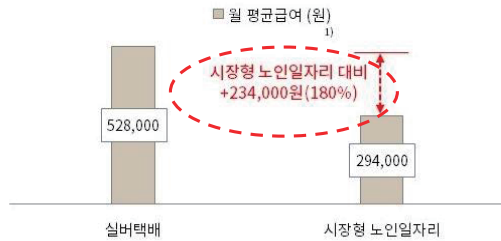
3. 실버택배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

실버택배는 기존 정부주도 시장형 일자리와 달리 택배 수수료에 기반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고령계층의 빈곤문제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대비 월 평균 수입 약 180% 높은 수준



1) '15년 5월, 한국노인 가로(항목) 축 분석자료(실적기준)

| 항목 | CJ대한통운 실버택배 | 시장형 노인일자리 |
|-------|---|--------------------------------|
| 월 수입 | 52.8 만원 | 29.4 만원 |
| 대표 업종 | 주거 밀집지역 거점택배 | 식품제조, 공산품 제작, 매장 운영, 세차 및 세탁 등 |
| 특이 사항 | · 건당 수수료 지급 (450원) · 참여 시니어별 근무시간 상이 (4~8시간, 개인 희망에 따라 조절) | |

참여 시니어의 높은 만족도

- 소득 창출, 건강 증진,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기쁨 등 참여하는 고령계층의 만족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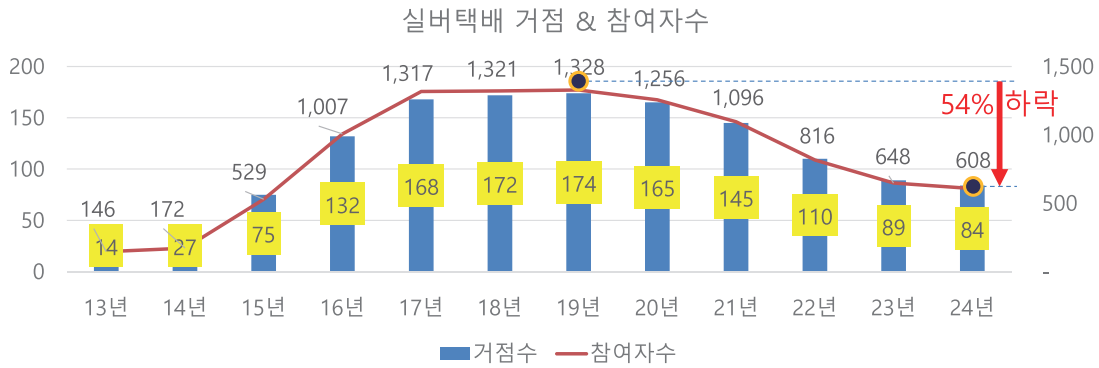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들도
다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건강도 유지되고
너무너무 즐거워 합니다”



3. 실버택배

거점 & 일자리수 현황

실버택배는 13년 거점 14개/146명 시작하여 19년 174개/1,3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운영기관의 관리체계 부실과 참여자들의 고객CS 하락으로 계약종료 되어 24년 현재 84개/608명으로 19년 대비 720명(54%) 하락 함.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거점 | 14 | 27 | 75 | 132 | 168 | 172 | 174 | 165 | 145 | 110 | 89 | 84 |
| 참여자 | 146 | 172 | 529 | 1,007 | 1,317 | 1,321 | 1,328 | 1,256 | 1,096 | 816 | 648 | 608 |

2024년 실버택배 보고서 중

4. 거점 폐점

원인 및 개선방안

19년 부터 시작된 실버택배 폐점(참여자 실업)은 24년 누계 91개 거점으로 확대 된 상태로 그 원인을 분석하면 택배사 고객 CS평가 점수 미달에 따른 물량공급 계약종료와 운영기관 사업포기에 따라 거점 폐점이 원인으로 분석 됨

1. 거점 폐점 현황

| 구분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비고 | |
|-------------------|--------------|-----------------------|-----|-----|-----|-----|-----|----|----------------------------|
| 거점 폐점 (참여자 실업) | 택배사 계약 종료 | 대리점 계약 만기 | 1 | | 1 | 2 | 1 | | |
| | | 고객 CS점수 하락 | | 8 | 6 | 10 | 9 | 1 | |
| | 운영기관 사업포기 | 기관 사업장 폐쇄 (관리 어려움) | | 1 | 12 | 18 | 8 | 4 | 자활사업단 또는 장애 인사업단으로 변경 됨 |
| | | 참여자 희망 | | | 1 | 5 | 4 | - | |
| 합계 | | 1 | 9 | 20 | 35 | 21 | 5 | | |

2024년 실버택배 보고서 중

2. 거점 폐점 개선방안

- 택배사 계약 종료
 - 대리점 물량계약종료에 따른 거점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와 직접계약 추진 중
 - 고객CS점수 하락에 따른 계약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터 자체적인 배송/CS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기관 사업종료
 - 기관사업장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관용 시스템 개발(일상터App)하여 보급 중
(효과: 관리자(복지사)들의 업무강도 감소로 원활한 업무처리 가능 함)
 - 참여자 희망에 따른 폐쇄방지를 위해 교육체계 개선 및 추가 인력확보를 위한 솔루션 제공 중
(효과: 참여자 대체에 따른 시장형 일자리 유지 가능)

4. 거점 폐점

사례1_노원 상계9동 경로당

실버택배 노원 상계9동 경조당에서 15년 거점을 구축하고 노인참여자 21명을 함께 월 약 40,000박스(월 매출 2,000만원)의 택배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나 19년 사업운영 책임자 사망에 따른 사업 폐쇄/참여자 21명 실업

1. 거점 현황



- 1) 거점장소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단지 경로당
- 2) 시설평수 : 약 40평
- 3) 운영기관 : 상계9동 경로당 협동조합
- 4) 업 무 : 통합택배 배달
- 5) 참여자수 : 배송인력 20명, 관리자 1명
- 6) 운영장비 : 스마트카트 12대, 수동수레 10대
- 7) 월처리량 : 약 40,000[box]
- 8) 월 매출 : 약 2,000만원
- 9) 참여자 평균급여: 월 100만원

2. 계약내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구분 | 아파트시설 (거점) 사용 | 거점운영 | 참여자 | 시스템 제공 | |
|------|---------------|---------------------|--------------------|------------------------|--------------|
| 통합택배 | 계약 | 아파트 관리소 <-> 경로당 | 경로당(협동조합) <-> 참여노인 | 경로당(협동조합) <-> 일상생활지원센터 | |
| | 내용 | 주차장 2면 분류장, 사무실 40평 | 거점운영 관리자, 분류자 운영 | 택배 배달 | 배송App, 관리Web |
| | 채용 | | 1명 | 20명 | |

3. 거점폐쇄/일자리상실 원인: 사업운영 책임자 경로당 회장님(80세) 사망에 따른 사업종료

4. 거점 폐점

사례2_인천연수

실버택배 인천 연수구 시대/하나 2개 거점은 13년 거점을 구축하고 노인참여자 30명이 월 약 14,000박스의 택배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나 23년 기관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장 폐점/참여자 13명 실업

1. 거점 현황



- 1) 거점장소 : 인천 연수구 시대/하나@
- 2) 시설평수 : 약 15평
- 3) 운영기관 : 인천연수일자리센터
- 4) 업 무 : 통합택배 배달
- 5) 참여자수 : 배송인력 12명, 관리자 1명
- 6) 운영장비 : 수동수레 12대
- 7) 월처리량 : 약 14,000[box]
- 8) 월 매출 : 약 800만원
- 9) 참여자 평균급여: 월 80만원

2. 계약내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구분 | 아파트시설 (거점) 사용 | 거점운영 | 참여자 | 비고 |
|------|---------------|-----------------------|--------------------|-------|
| 통합택배 | 계약 | 아파트 관리소 <-> 인천연수일자리센터 | 인천연수일자리센터 <-> 참여노인 | |
| | 내용 | 주차장 4면 분류장, 사무실 5평 | 거점운영 관리자, 분류자 운영 | 택배 배달 |
| | 채용 | | 1명 | 12명 |

3. 거점폐점/일자리상실 원인: 운영기관 관리자 이직 및 참여자 미 충원에 따른 사업장 폐쇄

5.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신규 일자리 창출

일상터 플랫폼인 오프라인 거점인 "60+일상터" 기반으로 실버택배 외 시니어 참여 가능한 4가지 이상의 신규서비스를 개발하여 "60+일상터" 거점당 3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1. 거점 현황



(일상터_장위동 거점)

(별내 위스데이 거점)

(다산 자이 거점)

2. 서비스별 계약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구분 | 구분 | 사업유형 | 참여대상 | 일자리 창출수 | 업무내용 | 계약관계 | 비고 |
|------|------------------|------|--------|------------|----------------------------|------------------------------|----|
| 통합배달 | 실버택배 | 시장형 | 60세 이상 | 6 | 통합택배 대리점 기반의 아파트 거점택배 배달업무 | 택배사<->일상법인<->경로당or일자리창출기관 | |
| | 택배/우편 접수 대행 | 시장형 | 60세 이상 | 6 | 거점기반의 택배집화/우편물 대행접수 | 택배&우체국<->일상법인<->경로당or일자리창출기관 | |
| | 시니어 라이닝 | 시장형 | 60세 이상 | 6 | 750m내 도보 시니어라이더 | 지역 상가<->일상법인<->경로당or일자리창출기관 | |
| | 등하원 돌봄 | 시장형 | 60세 이상 | 4 | 입주민 대상 일 2시간 등하원 지원 | 지역 상가<->일상법인<->경로당or일자리창출기관 | |
| 생활편의 | 시니어생산물 판매매장운영 | 시장형 | 60세 이상 | 8 | 시니어생산물 판매 매장 운영 | 공동작업장<->일상법인<->경로당or일자리창출기관 | |
| 소계 | | | | 30 | | | |

※ 2021년 시범운영으로 추진중인 거점당 일자리 추진 목표

5.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사례1_60+일상터_위스데이

24년부터 확대중인 60+일상터는 위스데이 경로당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택배 집화, 우편 대행, 노인생산물 온 오프라인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점 임

1. 거점 현황



- 1) 거점장소 :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데이 상가 106호
- 2) 시설평수 : 약 5평
- 3) 운영기관 : 60+협동조합(경로당)
- 4) 업 무 : 택배집화, 우편대행, 노인생산물 온 오프라인 판매
- 5) 참여자수 : 매장운영 10명, 온라인 운영 2명
- 6) 운영장비 : 스마트 카트 1대
- 7) 업무형태 : 정규직
- 8) 월 매출 : 약 400만원
- 9) 참여자 평균급여: 월 평균 40만원

2. 계약내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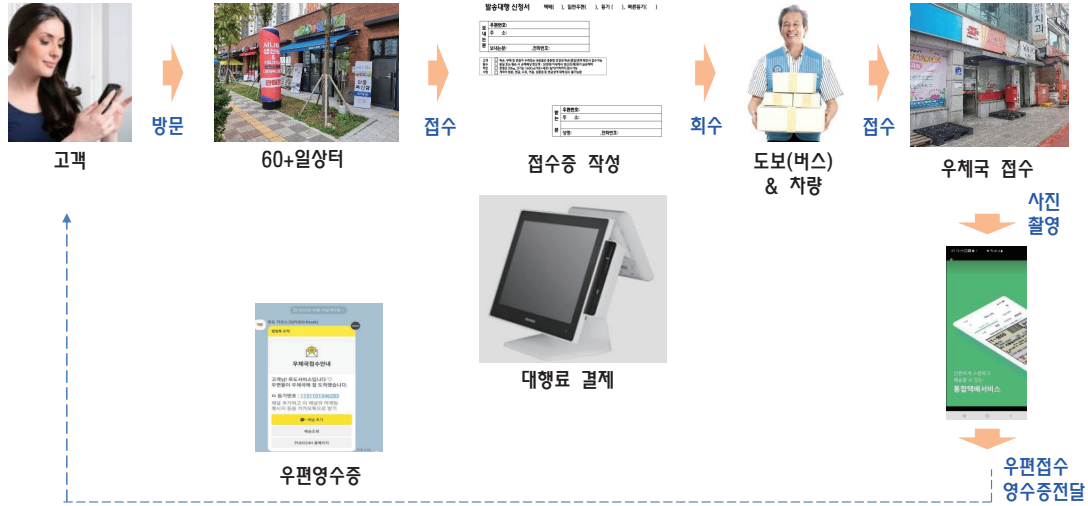
| 구분 | 아파트시설 (거점) 사용 | 거점운영 | 서비스 운영 참여자 | 비고 |
|----------|--------------------------------|---------------------------------|----------------------------|----|
| 통합 택배 | 아파트 관리소 <-> 60+ 노인회(경로당) | 60+ 노인회(경로당) <-> 일상생활지원센터 | 60+노인회(경로당) <-> 참여노인 | |
| | 상가 106호 5평 제공 | 거점운영 관리자 | 택배집화, 우편대행, 노인생산물 판매 | |
| | 채용 | 2명 | 10명 | |

6. 일자리 종류

사례1_택배/우편접수 대행서비스

생활편의 O2O 플랫폼 기반의 택배/우편 접수대행 서비스는 고령층에게 필요한 택배접수 대행과 우편취급금 감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인일자리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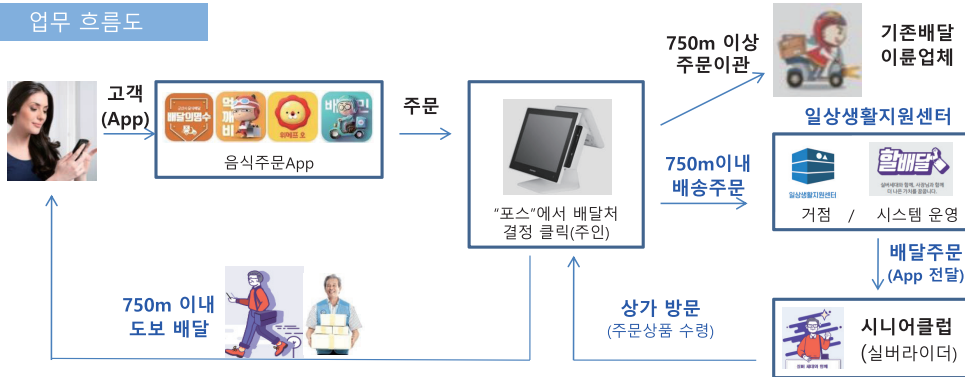


6. 일자리 종류

사례2_시니어 라이딩

시니어 라이딩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니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지 서비스로 배달비용 절감, 배달시간 단축, 검증된 배달원들을 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업무 흐름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효과

기존1명 = 실버라이더 4명

이용 상가 서비스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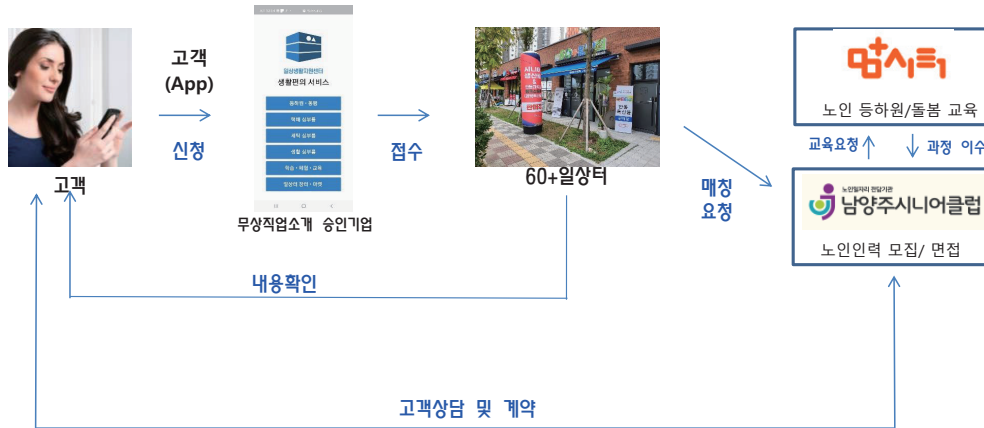
- 배달비용 15%절감**
오토바이 대여 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하여 저렴한 배달료를 제공합니다!
- 배달시간 50%단축**
유용배출이 아닌 단원배출 시스템으로 빠른 배달을 약속드립니다!
- 확실한 배달품질**
도보 배달을 이용하여 음식물 손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한정기간 배달을 약속드립니다!
- 검증된 배달원**
가량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자격 검증 시험을 거친 본업만 배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6. 일자리 종류

사례3_등하원서비스

등하원/돌봄 서비스는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서비스로 아이돌봄 전문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 참여자들에 한해 고객(주민)과 면접 미팅 후 계약 매칭을 진행하고 있음

업무 흐름도



6. 일자리 종류

사례4_시니어생산물(지역 특산물)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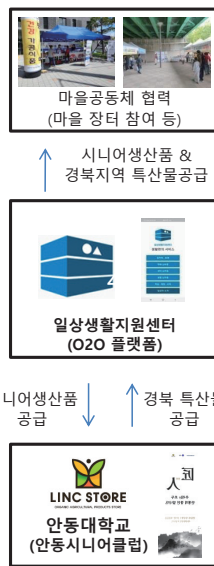
“60+일상터” 기반으로 각 아파트 경로당과 연계하여 온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각 지역에서 생산중인 노인 생산물(특산물)을 아파트 공동체와 연계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전체를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제공 중

시니어 생산물 & 특산물판매
업무 협약(MOU) 완료

“판매”



“생산”



7.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 제언

1.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 1) 취업형 일자리 확대 및 직무의 다양화를 위한 시니어용 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시니어 교육 3-3-3 도입 "3배 느리게_3번 반복_3회 재 교육" 필요)
 - 2) 안전한 고용환경 기반 강화 (기존 노동법이 아닌 노인 생산력에 맞는 노동법 필요)
 - 3)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인적합형 민간일자리 개발 제언 (4차 산업형 업무 세분화와 단순화 및 기술혁신형 일자리 개발 필요)
2. 노인시설 &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의 사용목적 변경 제언
 - 1) 경로당의 조직체계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동참 (고령자 중심의 임원진을 70세 이하 베이비 붐 세대로 변경하여 운영인력의 혁신 추진)
 - 2)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기관과 복지형 공공일자리 창출기관의 평가기준 변경요청 (공공일자리 보급에 대한 평가기준 하락과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 | | | | |
|---|--|--|---|---|
|  일자리 창출 ▪ 참여 계층의 다양화 ▪ 일자리 형태 다양화 |  친환경 물류 ▪ 택배차량 탄소배출 절감 ▪ 친환경 배송장비 도입 |  동반 성장 ▪ 지역 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육성 |  사업적 가치 창출 ▪ Last mile O2O플랫폼 운영 |  노인교육용 콘텐츠 개발 ▪ 참여자 업무능력제고 ▪ 고객만족도 향상 |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DIGITAL AGING을 기대하며...

Thank You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임인섭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이사



<토론문>

어르신 일자리 현장 체험

임인섭(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이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일자리 담당 선임이사 임인섭입니다.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께서 취임 이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임기중 최대 중점사업으로 선포하시고 저를 일자리 담당 선임이사로 임명하시면서, 어르신 일자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앞으로 서울시연합회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제가 어르신 일자리 현장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소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만 70세이고 아직까지는 스스로 신체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인 샛강 지킴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어르신 샛강지킴이 사업은 샛강에 대한 시민 주도형 환경개선과 한강 생태계 보호 활동이 정착되도록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생태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을 ‘샛강 지킴이’라 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난지수변학습센터 2명, 한강야생탐사센터 2명, 여의샛강생태공원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하는 일은 약간씩 다르지만 참여자 모두 경제적 도움, 건강증진, 여가시간 활용이라는 큰 성과와 함께 자존감을 높여주는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난지 한강공원내에 있는 난지수변학습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월,화,토요일)을 여성 참여자 한 분(A)과 함께 조를 이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연령 및 체력에 맞는 일자리의 필요성, ②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시, ③어르신 입장에서의 희망 요구사항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곳에서 저는 1일 5시간(9:30~14:30) 근무를 하였으며, 크게 금지행위 계도, 환경관리 보조, 학생 체험활동 보조, 안전관리 및 환경 미화 등이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주로 생태습지학습원내 정해진 통로 외 생태습지공원에 출입해서는 안되는 곳에 출입하거나, 금지구역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 낚시·수렵·나물채취 등을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원에서 관리하는 개구리 올챙이 연못, 거북이 연못, 학습용 논, 밭을 맡고 계신 기사분을 도와 물관리, 논 밭갈이, 모내기 등, 옥수수 들깨 서리태 파종, 김매기, 추수 등, 고추, 오이, 배추, 무 모종 심기 등을 보조하고 관리하며, 이를 어린이,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보조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 봉사 선생님들의 유해물질 제거, 외래종 잡기, 씨앗공 제조 투척, 수질정화공 제조 투척 등 환경지킴이와 안전 도우미 역할, 학습장 내외의 청소, 환경 정리 등 다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도 학습센터에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 자연환경 보호 활동

학습 보조를 하며 또 그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일은 모든 어르신들의 체력과 연령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일 중에 기사분을 도와 했던 연못 관리나 논, 밭 관리 보조는 힘이 들 때도 있었으며, 저보다 고령의 어르신이었다면 그 일은 힘에 겨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일자리에 맞는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두 곳의 샛강지킴이(한강야생탐사센터,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는 그러한 힘든 일이 없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여자분 A씨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고령으로 강동구에 사시는데 수변학습센터에 출퇴근하는 데 4시간(걸는 시간 2시간 포함)이 소요되어 근무시간 5시간을 감안하면 출근하는 날은 약 9시간으로 80세 노인이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루도 결근 지각없이 출근하셨는데 보통의 노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샛강지킴이 일자리가 확대되어 강동구에도 걸어서 30분 내외로 출퇴근에 1시간 이내로 가능한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래 금년도 새로 생긴 그린스마트쉼터 일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면, 현장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대부분 보조하는 일이라,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가끔 지시하는 분의 의도와 수명하는 분의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아침 출근시 예정된 오늘의 일과에 대한 직원들과 의사소통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출근일에 예정된 일은 퇴근 전 미리 알려주고, 주초, 월초에 예정된 주요 계획은 미리 알려주어서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수요자인 고령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당 보수를 많이 주는 일자리, 하기 쉽고 편한 일자리도 좋지만, 일자리가 집 근처에 있고, 몸을 움직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약간의 성취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필요합니다. 가사일, 손자녀 돌봄의 시간을 피해 할 수 있는 출퇴근이 고정되지 않는 단 시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를 서울시연합회에서 금년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은 (주)5아침(이하 'B사'라 한다)와 그린스마트쉼터 관리대행 사업에 서울시연합회에서 어르신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강남구 도산대로와 학동로 대로변에 있는 20개의 그린스마트쉼터를 대상으로 1차로 4명을 알선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금년에는 셋강 지킴이는 다른 분이 하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자분 A씨도 저와 함께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30분 내로 출근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쉼터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스마트쉼터를 간단히 소개하면 B사가 광고할 기업주

를 모집하여 B사가 그린스마트쉼터를 제작 설치하고 기업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린스마트쉼터를 관리유지 하는데 서울시연합회가 관리의 일부, 청소와 각종 전자기기, 기판(광고판, LCD, LED, 냉난방기, 휴대폰 충전기, 형광등)의 정상 작동, 훼손, 고장 등 유무를 점검 보고하는 일자리로 20개의 그린스마트쉼터를 4명이 일요일 제외하고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에 이어서 중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쉼터 관리를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그린스마트쉼터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관리 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와 구에 고마움을 표시하곤 합니다. B사 직원의 전언에 따르면 많은 다른 구청으로부터 그린스마트쉼터의 설치를 요구받고 있다 합니다. 이런 그린스마트쉼터가 서울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이 만들어지고, 다른 구청으로 설치가 확장되면 앞에서 언급한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집 근처에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왜 노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보다, 1개의 일자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체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전용 일자리 직종을 발굴해주기를 바랍니다. 빅데이터용 자료 및 정보 수집, 각종 설문조사, 시장조사 등 업무는 어르신 전용 업무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어르신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 주고, 자존감을 높여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르신 일자리는 사회를 밝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건강과 체력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자입니다. 특히, 오늘의 어르신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오직 나라와 가족들을 평생 희생만 하신 분들입니다. 본인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체력에 맞는 일자리, 높은 임금이 아닌 경제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타령을 한다거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지 맙시다. 조금 손해를 본다는 등, 이익이 줄어든다는 등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한평생 희생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인 노인시대에, 노인이 세대간 장벽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 중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잘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튼튼한 주춧돌이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 론

황갑석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장



<토론문>

취업 지원·알선 현황 및 문제점

황갑석(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장)

오늘 저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노인일자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민간기업이나 여러 기관들과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와 아이돌보미 사업, 국시원 시험감독관 사업, 조선일보 시니어배달원 사업, 연세우유 배달원사업, 한국야구르트 배달사업 등

현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민간취업알선형 사업으로 해마다 꾸준히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 4만 5천여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취업 알선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비고 |
|-----|-------|-------|-------|-------|----|
| 계 | 2,640 | 2,598 | 2,525 | 2,665 | |
| 청소 | 850 | 949 | 805 | 812 | |
| 경비 | 1,025 | 1,105 | 926 | 763 | |

| | | | | | |
|------|-----|-----|-----|-----|--|
| 현장관리 | 214 | 171 | 201 | 195 | |
| 농림어업 | 119 | 135 | 111 | 121 | |
| 기타 | 432 | 238 | 482 | 774 | |

○ 2023년도 취업자 연령별·성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60~64세 | 65~74세 | 75세~ | 남 | 여 |
|----|-------|--------|--------|------|-------|------|
| 계 | 2,665 | 354 | 1,640 | 671 | 1,741 | 924 |
| 비율 | 100 | 13.3 | 61.5 | 25.2 | 65.4 | 34.6 |

서울지역의 2023년도 전체 취업자 2,665명 중 남자 1,741명, 여자 924명으로 남자 취업자가 65.4%를 차지하였고, 남자 취업자 중 경비원이 763명으로 43.8%를 점유하고 있고, 여성 취업자 924명 중 88%인 812명이 미화원 직종에 취업하여 두직종의 취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0%를 넘어서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선형 일자리사업 업종의 단순화

대한노인회 취업알선형 사업이 경비,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치과기공소 배달직, 주유원, 농촌일손 돕기 등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움과 함께 노인들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경력 활용 취업 시스템의 부재

젊은 시절의 왕성한 사회 활동시기에 익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재취업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 본인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구직 활동을 지원해 줄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디지털 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등으로 인해서도 취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처 개발 및 발굴의 필요

수요처와 일자리 참여자(노인)간의 욕구(니즈)가 다릅니다. 즉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이에 걸맞는 수요처가 많지 않아 취업을 할 수가 없으며, 간혹 일자리가 있다 해도 단순 노동직이거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등 물리적으로 힘든 일에 국한되어 근로 조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제도적 문제 개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지원의 한계로 인한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중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르신 취업알선 창구의 일원화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복지관, 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노인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지원(고용 프로그램) 및 인식의 부족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단순 노무직 일자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노인들에게 단순 노동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나은 보상과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2. 법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

득과 적절한 근로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등의 좋은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3.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노인들이 현재의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외국어 등의 새로운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존 경력 인정 및 활용 프로그램 필요

높은 연령대에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식과 스킬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적극적인 홍보 요청 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 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2. 시니어인턴십과 취업지원센터의 민간알선형사업의 이해충돌 (구직처에 대한 지원 유무로 인한 시니어 인턴십을 선호하고 취업연령도 55세와 60세 이상으로 차별화 됨)
3. 취업 구비서류가 많아 구직처로부터 컴플레인 제기 빈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